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차문화 정체성의 공감각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이 서 율

# 교차문화 정체성의 공감각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이 서 율


# 인 준 서

이서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김성복 

심사위원 장옥희 

심사위원 노주환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란 연구자의 경험과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공감각(共感覺)·다(多)감각적으로 표현한 예술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al Kids)’이라 불리는 이들이 두 개 이상의 문화 사이에서 혼란과 불안을 겪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결할 수 없는 상실의 정서 즉 노스탤지어(nostalgia)와 정서적 고향을 단정할 수 없는 디아스포릭 노마디즘(diasporic nomadism)이다.

연구자는 앙리 베르그송(Henri L. Bergson)의 지속 개념에 착안하여 이주(移住)라는 과거의 단편적 사건이 연구자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기억의 지속은 우리를 동일한 자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므로, 어릴 적 이주를 통해 경험한 것들은 연구자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연구자의 자아 및 가치관에 결부된다.

공감각(共感覺)은 교차문화 아이들이 문화의 융합(cultural hybridity)을 통해 형성한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관람자들의 이해를 도우며 그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자는 후각 자극과 기억의 연관성을 이용해 조향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설치를 통해 연구자는 후각 자극으로 말미암아 과거 기억의 재현 효과를 얻게 되고, 관람객들은 시각 작품 감상에 앞서 냄새 분자로 발산되는 연구자의 노스탤지어적 정서에 영향받음으로써 작품의 감상과 이해에 도움이 되길 꾀했다.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음악 작품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고, 이를 루프 재생함으로써 시작과 끝을 모호하게 만들어 지속성을 강조하였다.

여러 문화 사이에서 적응했던 교차문화 정체성은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회화가 평면을 벗어나며 벽의 경계를 넘어서는 양상으로부터 투사할 수 있다. 회화의 부조화(浮彫化)는 모호한 경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교차문화 아이들의 문화적 주변성(cultural marginality)과 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문화의 융합을 연상시키며, 문화적 가교역할을 하게 될 그들의 미래를 상징한다.

이 연구는 2024년 석사청구전에 출품한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본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본론에서는 작품의 이론적 배경과 작품을 표현하게 된 방법, 이어서 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 방법을 밝히고 작품설명을 덧붙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 형성 배경 .....	3
1) 교차문화 아이들 그리고 노마디즘과 노스탤지어 .....	3
2) 베르그송의 유동하는 자아 .....	12
3) 공감각적 예술 표현 .....	16
2. 작품 표현 방법 .....	18
1) 후각 자극과 기억의 재생 .....	18
2)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지속성 .....	21
3) 회화, 벽의 경계를 넘어 .....	23
3. 작품 분석 .....	26
III. 결론 .....	69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 <fumet(냄새)>  
아로마 에센스 오일, 채소 혼합, 각 80ml, 4.5×4.5×22cm(2개), 2024
- 【작품2】 <maternité(산부인과)>  
캔버스에 아크릴, 폐상자 종이죽, 72.7×60.6×9cm, 2023
- 【작품3】 <vagues vagues(막연한 밀려듦)>  
캔버스, 폐상자 종이죽, 달걀판, 수채, 한지, 72.7×121.2×7cm, 2023
- 【작품4】 <Mme. Insomnie(밤 친구)>  
캔버스에 아크릴, 폐상자 종이죽, 폐상자, 수채, 100×80.3×5cm, 2023
- 【작품5】 <L'horizon(지평)>  
캔버스에 아크릴, 폐상자 종이죽, 수채, 슬라이, 116.8×72.7×4.5cm, 2024
- 【작품6】 <sans arrêt(끊임없이)>  
애니메이션과 음악, 2'28", 2023
- 【작품7】 <lumière, lumière(빛더빛)>  
캔버스에 아크릴, 폐상자 종이죽, 폐상자, 수채, 116.8×80.3×4cm, 2023
- 【작품8】 <cœur(강심장)>  
캔버스에 아크릴, 폐상자, 수채, 지점토, 100×80.3×4.3cm, 2023
- 【작품9】 <MATERNITE(母)>  
캔버스에 아크릴, 72.7×60.6×2cm, 2023
- 【작품10】 <florissant(피움)>  
캔버스, 한지, 달걀판, 수채, 색지, 100×72.7×6.2cm, 2023

## 도 판 목 록

【도판1】 Christine Rasmussen, <FLOATING ON BY (Ave I)> .....	6
【도판2】 김수자, <보따리 트럭 - 이민자들> .....	10
【도판3】 쿠사마 야요이, <Infinity Mirrored room- Gleaming lights of Souls> .....	14
【도판4】 신성희, Solution de continuité (연속성의 해결)> .....	24

# I. 서 론

급속한 세계화로 지구촌이 좁아짐에 따라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al Kids)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관련 연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며, 그 분야도 대개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에 그친다. 지도자나 상담자의 관점에서 교차문화 아이들 혹은 교차문화를 겪은 성인을 관찰, 분석한 유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여러 문화를 겪은 당사자는 피실험자가 되어 타인을 통해 재해석되고 표현된다. 인간의 삶과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문자와 숫자만으로 표현한다는 것에는 분명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예술작품 기록은 작가의 작업물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을 반영하고, 작가가 창작한 예술작품의 맥락과 가치에 대한 증거가 된다.<sup>1)</sup>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차문화를 경험한 연구자의 직접적 경험과 감정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그 배경과 관련 이론을 제시한, 교차문화 아이들에 관한 직접적이며 새로운 관점의 데이터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IT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 국가 간의 긴장 완화로 국외여행이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교차문화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다중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교차문화 아이들을 연구하는 것은 세계를 누비며 살아가는 미래 인류의 원형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문화 아이들로서 연구자의 경험을 표현한 작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제2장 본론은 작품을 형성하게 된 이론적 배경과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

1) 황진현,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p.12

구성되었다. 첫째, 작품의 형성 배경에서는 교차문화 아이들을 정의하고 관련 개념인 노스텔지어, 디아스포라, 노마디즘의 정의를 통해 교차문화 아이들과 각 개념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교차문화를 경험한 연구자의 유동적인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베르그송의 지속을 설명한다.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감각(共感覺)과 여러 감각을 통해 몰입감을 주는 표현 방법인 다(多)감각적 예술을 설명한다. 둘째, 작품 표현 방법에서는 프루스트 효과를 활용한 조향 작품의 작용에 대해 밝히고, 과거의 기억으로서 이어지는 현재를 영상과 음악이라는 매체의 성질을 활용한 방식을 설명한다. 또한, 미술사 속에서 회화가 평면성을 벗어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살펴본 뒤, 본 연구의 주제 및 사용된 재료와의 연관성을 언급한다. 이어서, 10개의 작품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 방법을 밝히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 배경

#### 1) 교차문화 아이들, 노스텔지어, 노마디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자란 사람들’에 관한 명칭은 화려한 내력을 가졌다. 과거의 ‘재외동포’나 ‘교포’라는 용어를 거쳐 오늘날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동포나 교포는 ‘재불(在佛) 동포, 재미(在美) 교포’ 등의 형식으로 쓰이며, 근원을 대한민국에 두고 현재 위치를 고정한다. 이 용어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칭하기에 ‘다문화’라는 말은 단어의 의미상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라는 용어는 주로 한국인과 결혼이 전제되어 결혼이민자가 꾸리는 형태로 ‘다문화가정’이라고 쓰이거나 그 자녀를 일컬어 ‘다문화 자녀’ 등으로 쓰인다. 일상적으로 흔하게 쓰던 용어 중 두 개 이상의 문화권을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을 아우르는 정확한 용어를 찾을 수 없었다.

연구자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유아기에 한국에 처음 왔고, 한국에서 10년 정도 지내다가 청소년기에 미국에서 1년 거주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성장기 내내 고향이 어디인지 헷갈렸고, 이주할 때마다 문화충격 및 역(逆)문화충격으로<sup>2)</sup>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한국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일반인들에게 자유로운 국외여행이 허용되었고<sup>3)</sup> 자유이민

2) 역(逆) 문화충격(reverse culture shock) - 다른 문화권에서 지내다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문화충격.

3)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는 1989년에 이루어졌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다 -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theme/next/koreaOfRecord/globalTravel.do>)

도 비슷한 시기에 두드러지게 늘었다.<sup>4)</sup>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다른 나라에서 지내다 돌아온 부류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본인보다 10년 이상 어렸으므로 유대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유사 경험집단을 만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하며 고립감을 느꼈다. 인터넷 검색이 일반화된 후에야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며 이들과 본인이 유사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이라고<sup>5)</sup> 불리는 이들은 본디 부모의 특정 직업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아이들을 지칭한다. 이에, 루스 반 레켄(Ruth Van Reken)은<sup>6)</sup> 지나치게 세분된 여러 명칭 속에서 다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용어의 필요성을 느꼈고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al Kids: CCKs)’이라<sup>7)</sup>는 용어를 제안했다.

어린 시절 다문화 환경에 노출된 이들은 “Where are you from?” 등의 원론적인 질문에 평범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 연구자가 이 질문에 당면했을 때 ‘한국과 프랑스의 중간인 어디쯤’이라고 대답한 경험이 있는데, 이 경우 의도와 다르게 양국 중간에 있는 생똥맞은 국가를 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꼭 집어 한 나라를 언급하자면 다른 한 나라를 버리는 것과 같은 자괴감이 든다. 그나마 다민

4) 1965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이민법 규제가 철폐된 이후, 60년대에 비하여 80년대에 2,500%의 비율로 증가했다. <South Korea,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2017>)

5) 성인이 되기 전에 해외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두 개 이상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들. 이수경 외 6인,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의 학업·사회적 적응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4-3호, 2018, p.567

6) 루스 반 레켄(Ruth Van Reken) -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성 치료사. 어린 시절 나이지리아에서 13년을 산 경험이 있는 교차문화 아이들 출신이며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도 교차문화 아이들 출신이다. 따라서 교차문화 아이들에 관한 연구와 집필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3판과 「제3문화 아이들, 교차문화 아이들 그리고 국제유목민」의 공동 저자이다. 세계를 이동하며 사는 개인과 가족의 재정과 학업, 직업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인 ‘패밀리 인 글로벌 트랜지션(Families in Global Transition)’의 공동설립자이다.

7) 교차문화 아이들(Cross-Cultural Kids: CCKs) - 18세가 되기 전 어린 시절의 발달 시기 동안 2개 이상의 문화적 환경에서 거주했거나 2개 이상의 문화와 상호작용했던 사람을 일컫는다. 앞의 책 p.55

족, 다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에서는 답변이 조금 쉽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다양성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코 코레안느(franco-coréenne)’라는<sup>8)</sup> 단어 한 마디로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를 모두 설명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되돌아오는 반응이나 질문이 귀찮아지고, 때로는 잘난 척한다는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해, 현재 거주 중인 지명을 대답했다. 다문화를 경험한 여러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나 수필을 엮은 <제3문화 아이들, 교차문화 아이들 그리고 국제유목민>이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고향(origin)이 어디라고 말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기도 한다고 말한다.<sup>9)</sup> 또 어떤 이는 실체가 없는 장소 대신, 사람이나 특정 기억으로 고향을 정의하기도 한다.<sup>10)</sup>

노스텔지어(nostalgia)란<sup>11)</sup> 잠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나 장기적으로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떠난 나라를 그리워한다는 ‘향수’나 ‘향수병’의 개념으로 통용된다. ‘향수’는 고향의 실체가 없고 고향을 정의하기 어려운 교차문화 아이들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향수’ 대신 노스텔지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대개 ‘고향을 그리워함’, ‘친구를 잃은 상실감’ 등 노스텔지어라는 정서 앞에 대상을 넣는다. 노스텔지어와 어떤 단어를 짝지으면 교차문화 아이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8) 프랑코(franco-)는 로망스어에서 ‘프랑스의’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따라서 ‘프랑코-코레안느(franco-coréenne)’는 프랑스-한국인이라는 뜻이다.

9) 진 벨빌라다, 앞의 책, p.275

10) 진 벨빌라다, 위의 책 p.

11) 노스텔지어(英 nostalgia/佛 nostalgie) - 그리스어 nostos(돌아옴)와 álgos(고통)를 합친 말로서(nostalgie - 「L'ACADÉMIE FRANÇAIS」), 향수를 뜻하는 통속적인 의미와 삶의 범주 안에서 상실에 대한 아쉬움과 막연한 욕망에 대한 우울감을 뜻하는 확장된 현대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을 일컫는다.



【도판1】 Christine Rasmussen, <FLOATING ON BY (Ave I)>

파키스탄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크리스틴 라스무센(Christine Rasmussen)은<sup>12)</sup> 미국에서 활동 중인 화가이다. 그녀는 문화, 시간대, 언어 사이를 오가는 자칭 아웃사이더이다. 작가가 그림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해방으로, 이는 제3문화 아이들(TCK)의 공통된 정서이다.<sup>13)</sup>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성장 이력을 바탕으로 평범한 공간을 탐구하며 아름다움과 슬픔, 고독과 소통과 같은 ‘삶의 이중성’에 대해 집중한다.<sup>14)</sup> 푸른 하늘빛에 대조되는 붉은 스카프는 제멋대로 휘날린다. 따듯하고 정감 어린 색채로 가득하나 그 감상(感想)은 고독하고 허무하다.

12) 크리스틴 라스무센(Christine Rasmussen) - 버클리 대학교에서 실용 예술학과 평화·분쟁 연구를 전공하였다. 파키스탄, 베트남, 미국에서 자랐으며 현재 LA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화가이다. <https://www.christinerasmussenart.com/about>

13) <TCK Cultural Identity Discovered Through Art>, 《The Global Multicultural Magazine Culturs》, 2020 (<https://www.cultursmag.com/tck-cultural-identity-discovered-through-art/>)

14) Artist Statement(작가의 말) <https://www.christinerasmussenart.com/about>

라스무센의 허무한 캔버스 위 휘날리는 스카프처럼, 연구자가 노스탤지어를 표상한 소재는 바로 【작품1】, 【작품3】, 【작품9】 그리고 【작품10】에 등장하는 동백이다. 5~6세쯤 한국에 와서 처음 본, 동백나무 한 그루를 보고 느낀 강렬한 기억이 있다. 친척들이 모두 이 동백나무를 아끼는 모습을 보며 생활하였고, 연구자도 이 동백나무가 마음에 들었다. 유아기에 살던 곳을 떠나 처음으로 친척을 맞이했을 때, 그들과 나와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고, 이는 더욱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들과 유일한 공통점이었던 동백에 대한 애정은 본인과 가족을 이어주는 상징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후 자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실감 및 불안감을<sup>15)</sup> 극복하고자 동백을 뿌리와 동일시하며 애착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동백을 사용한 세 개의 작품에서 동백은 ‘한국’을 의미한다. 작품마다 동백을 활용한 방식을 통해 자아와 한국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작품1】에서는 향기를 퍼뜨리는 기능을 부가하여 동백으로부터 기억이 발산됨을 상징하였다. 【작품3】에서는 땅 위에 심겨있는 한 그루의 동백나무를 조형함으로써 동백이 연구자의 뿌리라는 점을 인지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1】과 【작품3】은 모두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를 표현한 것으로, 동백은 곧 가족, 혈연이다. 【작품9】에서 동백은, 연구자가 친척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으나 어머니로부터 태어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동백꽃을 일정한 간격에 맞춰 배열한 【작품10】에서는, 동백은 자아를 둘러싼 한국 사회를 표상한다. 즉, 【작품9】와 【작품10】에서 동백은 혈연에서 확장된 한국과 한국 사회 혹은 그것에 대한 감상을 동백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작품10】에서는 다른 작품에서 동백나무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인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불안함이 잠재워짐, 굳은 다짐, 정갈한 마음가짐 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15) 뿌리 없음(rootlessness) - 교차문화 아이들은 고향의 문화에 대한 경험이 미비하여 뿌리의식이 약하다. <Cross Cultural Kids By Ruth Van Reken> (<https://www.crossculturalkid.org>)



【작품3】 <vagues vagues> (detail cut), 동백꽃은 뿌리의 시각화이다.

교차문화 아이들은 ‘어디를’ 떠났는지, ‘무엇을’ 상실했으며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최초의 이주와 동시에 무언가를 상실하는 중일 뿐이다.<sup>16)</sup> 따라서 교차문화 아이들의 노스탤지어에 대한 목적어는 없다. 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뿐만 아니라, 육신은 한 국가에 정착했을지라도 정신은 끝끝내 정착하지 못하며 고향을 찾아 헤매는 여정은 곧 교차문화 아이들의 삶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삶은 디아스포릭 노마디즘(diasporic nomadism)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 spiro(흠뿌리다)에서 파생되었는데 대개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디아스포라는 여러 이유로 본국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대개 본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고수하며 무리 지어 공동체를 형성한다.<sup>17)</sup> 현대에 들어 디아스포라의 연구가 활

16)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 증상 중 하나이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접촉 시 생기는 모든 변화를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받는 자극과 반응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 이수경 외 2인, 「해외거주 한인 CCKs의 출국시기,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권 2호, 2015, p. 255

17) 김태연, 「디아스포라와 이성자의 미술세계」, 『홍익대학교』, 2016, p.7

발해 집에 따라, 그 의미가 물리적인 이주 상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뿌리가 없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sup>18)</sup>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이산, 지속적인 이동성, 뿌리 없음과 관련된 사회현상의 특징을 포함한다. 이들은 현 거주지 문화를 수용하고 본국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양국에 소속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sup>19)</sup> 두 개 이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교차문화 아이들의 경험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한 문화와 또 다른 한 문화를 흑과 백처럼 분리할 수 있는 개념도, 두 문화의 요소들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회색을 만드는 개념도 아니다. 교차문화 아이들은 경계 주변에서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며<sup>20)</sup> 자신이 경험한 두 문화를 융합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의 특징과 유사하다.

노마디즘(nomadism)이라는 용어는 ‘유목’이라는 단어가 가진 물리적인 이동과 정서적, 정신적인 사유의 이동을 포함한 개념이다.<sup>21)</sup> 유목민은 특정 목적에 따라 한 무리가 걸어서 이동하고 계절이 지나거나 특정 시간이 흐르면 원래 머물던 곳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유목민들은 이들만의 문화를 고수한다. 함께 이룬 집단의 어른으로부터 자신의 문화를 물려받는다. 이들은 현지 문화와 접촉하고 동화되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방향을 유지하고 고수한다. 그들은 그저 ‘장소’를 떠났을 뿐이다. 반면 교차문화 아이들은 저마다 갖가지의 이유로 뿔뿔이 흩어진다. 되돌아올지, 머물게 될지는 알 수 없고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 이주한 문화에 깊이 관여해 살게 되고 그 문화 아래에서 교육받는다. 그들은 ‘문화’와 ‘정서’로부터 떠났을 것이다.

18) 정형근,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디아스포라 소셜 활용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2014, p.49

19) 김태연, 앞의 논문, p.8

20) 문화적 주변성(cultural marginality)은 교차문화 아이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루스 반 레켄 (<https://www.crossculturalkid.org/who-are-cross-cultural-kids/>)

21) 이주이, 「경계의 모호성과 ‘시선의 전복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20, p.8

교차문화 아이들은 흔들린다. 이 흔들림이 바로 목적어 없는 노스텔지어이다. 교차문화 아이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느껴온 불안함의 원인을 찾느라 헤맨다. 이것이 뿌리 없는(디아스포릭) 떠돌기(노마디즘)이다. 디아스포라와 유목민은 뿌리가 있고, 교차문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여권에 찍힌 국적은 있으나 심정적으로 특정할 고향이 없다. 따라서 교차문화 아이들은 상술한 개념 중 단 하나의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노스텔지어와 디아스포라와 노마디즘 모두를 다뤄서 묘사해야 한다.



【도판2】 김수자, <Bottari Truck - Migrateurs>, 단채널 비디오, 9'17" 루프, 무음, HD, 2007

설치미술가 김수자는 ‘보따리 트럭 - 이민자들(Bottari Truck - Migrateurs, 2007)’을 통해 노마디즘을 표현한다. 이민자들의 이불 등으로 꿰맨, 다민족과 다양성을 뜻하는 보따리와 대비되는 검정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작가는 자신의 뒷모습만을 노출한다. 영상 속 이민자 김수자는 이동을 상징하는 트럭과 보따리를 통해 굳건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sup>22)</sup> 작가의 작품들은 아버지가 군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잦은 이사에서 나온다. 작품에 앞서 수없이 짐을 싸다 풀었던 보따리에 관한 남다른 체험이 선행된 것이다.

22) 전영백 저, 「발상의 전환」, 『열림원』, 2020, p. 48

연구자의 교차문화적 자아는 늘 어딘가를 향해 흐르는 ‘유동성’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청보랏빛 캐릭터를 창작하여 【작품4】와 【작품6】, 그리고 【작품7】에 적용하였다. 자아는 작품에 따라 괴물이 된 불면증에게 잠식당하거나, 고통스러움에 끊임없이 배회하거나,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작품5】에서는 캔버스 정 가운데 경계를 만들고 유동성을 가진 슬라임을 늘어뜨려 경계를 넘어가는 자아의 삶을 표현하였다.



【작품5】 <L'horizon> (detail cut)

이 작품에서 자아로 표상된 슬라임은 경계를 향해, 경계 근처에서, 경계를 넘어 버린다. 어떤 자아는 경계를 넘고 어떤 자아는 경계 부근에서 고민하는 듯 정체된다. 또 어떤 자아는 프레임을 벗어나 바닥에 쏟아지는 등 교차문화 아이들의 예상할 수 있는 삶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교차문화 정체성에서 유동성이란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행동의 경향, 기억, 자아 정체성 그리고 꿈이 움직임을 내포한다.

연구자는 작품을 만들기에 앞서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면서 감정의 흐름을 추적하여 감정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보았다. 과거는 교차문화 아이들로서 겪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느낀 쓸쓸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뿌리에 집착하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현재는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해 물속에 잠기거나 허공을 부유하는 느낌과 불안함<sup>23)</sup> 등이 신체화되거나 공감각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 와서 힘들다고 하면 ‘공주님 볼멘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는 스트레스를 다시는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감추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참고 감출수록 고통은 커졌다. 본인이 작품으로 표현한 자아의 유동성은 오랫동안 표출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내면에서 압축되어 으깨지며 질러대는 아우성의 방향이다. 그럼에도 삶의 희망을 품고 마침내 맞이할 미래를 꿈꾸었고,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분류하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지속에 착안하였다.

## 2)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지속과 유동하는 자아

과학자들은 운동하는 물체의 궤적을 통해 시간을 증명한다. 하지만 앙리 베르그송에<sup>24)</sup> 의하면 궤적은 시간의 순간적인 지점을 표시한 하나의 점들의 연결일 뿐,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25)</sup> 그는 흐르고 있는 시간을 ‘지속(la durée)’이라고 설명하였다. 지속은 돌이키거나 나눌 수 없는 하나이며, 우리 몸에 주어진 지속은 우리의 의식, 즉 자아라고 했다.<sup>26)</sup>

23)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은 교차문화 아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더 큰 선(善)을 이유로 다루어지지 못한 상실에 대한 것이다. 데이비드 폴락, 루스 반 레켈 저, 박주영 역, 「제3문화 아이들 : TCK : 세계에서 성장하는 경험」, 『비즈앤비즈』, 2008, p. 205~225

24) 앙리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1859~1941) - 19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저서 「L'Evolution créatrice(창조적 진화)」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다. Henri L. Bergson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나, 학문적인 저서에서 베르그송 스스로 Henri Bergson이라고만 표기해 왔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따른다. 저서로는 「물질과 기억」, 「웃음」, 「창조적 진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등이 있다. 베르그송 저,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책 커버

25) 한상우 저, 「베르그송 읽기」, 『세창미디어』, 2015, p.140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동일한 자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기억이다. 베르그송은 기억을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 되풀이되며 학습화된 기억인 습관-기억(le souvenir-habitude)<sup>27)</sup>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지로 보존된 기억인 ‘이미지-기억(image-souvenir)’<sup>28)</sup>이다. 기억은 하나의 이미지처럼 우리의 뇌에 저장되는데, 발현된 기억은 이미지-기억이라고 하며 그 외 기억되지 못하는 기억들은 순수 기억(le souvenir pur)<sup>29)</sup>으로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 순수 기억이란 단 한 번의 완전한 새 기억으로, 인간이 가진 고유한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sup>30)</sup> 과거는 이러한 순수 기억으로써 지속하며 이는 현재를 이루고 미래의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 고로 기억은 곧 인격이다. 베르그송은 무의식에 기록된 기억이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즉 자아라고 했다. 그리고 자아를 일상에서의 자아인 피상적 자아(le moi superficiel)와 깊은 곳에 감춰진 자아로, 개인 특유의 인격을 담고 있는 심원한 자아(le moi profond)로 나누었다.<sup>31)</sup> 과거는 지속이며 곧 우리의 삶이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가 되며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가 되어간다. 이는 자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곧 ‘지속’으로써 비롯된 것이다.<sup>32)</sup> 베르그송의 지속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연구자의 이주(移住) 경험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모든 경험은 순수 기억으로서 의식의 깊은 곳 어딘가에 저장되었으며 자아는 끊임없이 유동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베르그송의 개념으로부터 착안한 ‘유동적 자아’를 작품 안에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6) 위의 책 p.144

27) 언어를 습득하거나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거나 하는 등의 기억이다.

28) 황수영 저,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126

29) 베르그송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예로 들었다. 매번 같은 연주를 듣는다 하더라도 각각의 연주는 고유한 생명을 지니며 반복 불가능하고 일회적이다. 위의 책 p. 149

30) 이상근, 「순수기억에 의한 미적진술 방법연구 -연구자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2020, p.16

31) 이현경, 「베르그송 철학의 미학적 의의 -‘지속’과 ‘직관’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2003, p.16

32) 한상우, 앞의 책, p.152



【도판3】 쿠사마 야요이, <Infinity Mirrored room - Gleaming lights of Souls (무한거울방 - 영혼의 광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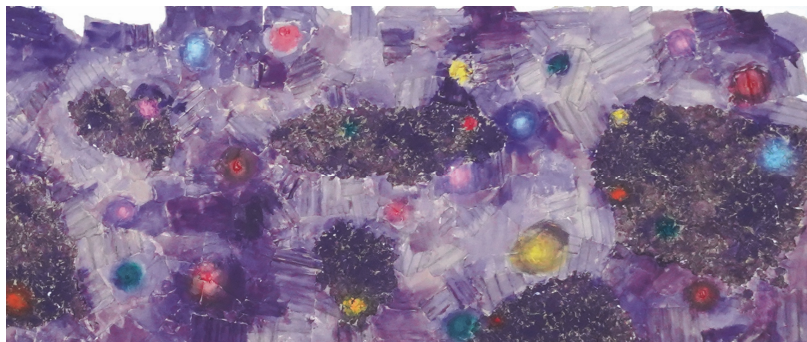
정신질환을 앓아온 쿠사마 야요이(草間 彌生)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환각과 환시라는 장애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하나의 동기만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강박적 반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 중 ‘무한거울방 - 영혼의 광채’(2008)는 방의 네 면에 설치된 거울 앞에 100개의 LED 전구를 놓아, 무한히 반짝이는 작가 자신의 영혼을 표현한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은 그녀가 경험하는 환각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아가 환상 속으로 사라지는 몰아(沒我)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sup>33)</sup>

쿠사마 야요이가 빛 반사의 반복을 통해 내면을 표현했듯, 연구자는 캐릭터의 청보랏빛 몸 위에 빛의 형상이나 빛 번짐의 형태를 그리며 꿈과 의식, 생각, 상상 또는 감정 등이 확장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4】에서는 연구자가 교차문화를 경험하며 생긴 막연한 불안감이 불면증으로 신체화되었음을 표현하였다. 불면증을 크리처로<sup>34)</sup> 표현하였고, 본인의 캐릭터는 밤이 되면 이 크리처에게 낮 동안 생성했던 희망과 긍정과 꿈 등을 빼앗기는 것을 표현하였다. 【작

33) 본태박물관 전시소개 - 제3관, <http://bontaemuseum.com/current-exhibitions/hall03/>

34) 생물, 생명체라는 의미의 ‘크리처(creature)’를 음차한 것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웹툰, 웹 소설에서 주로 괴물을 의미한다.

품7】은 거대한 태양과 캐릭터의 머리가 합체된 형태로써 자아의 성장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온기와 에너지의 근원인 햇빛을 통하여 충전된 희망과 긍정과 꿈을 되찾은 자아가 찬란을 향해 지속해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작품은 교차문화 아이들이 여러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며 성장하여, 세계라는 무대로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작품6】은 애니메이션과 음악 작품으로, 【작품4】, 【작품7】의 캐릭터와 같은 콘셉트로 가상의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걷는 모션을 부여하고 루프 재생함으로써 끊임없이 방황하는 아바타(avatar)를<sup>35)</sup> 만들었다. 이는 교차문화 아이들로 자라온 과거의 이력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직 끝나지 않는 괴로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하여 베르그송의 지속과 관련하여 유동적 자아를 표현함과 동시에, 과거의 기억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과거로부터 기인하여 미래를 향해 흐른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다. 따라서 작품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하고, 전시장의 벽 하나당 세션 하나의 작품을 설치하였다. 현재 세션의 벽 가운데에 애니메이션 및 음악 작품인 【작품6】을 배치할 수 있도록 프로젝터의 위치를 조정하고 각 세션에서 적절한 음량으로 음악이 들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를 상징하는 【작품6】의 음악이 들리는 영역 내의 관람자는 어느 세션에 있던 현재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도한 것이다.



【작품4】 <Mme. Insomnie> (detail cut)

35) 아바타(avatar) - 가상 현실에서 개인을 대신하는 캐릭터, 분신, 화신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우리말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3) 공감각(共感覺, synesthesia)적 예술 표현

공감각(共感覺)이란<sup>36)</sup> 서로 다른 감각 양식(modality)을<sup>37)</sup> 결합하여 느끼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특정 문자에서 특정 색을 보는 것, 냄새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시간 단위가 맛으로 느껴지는 것 등, 두 가지 이상의 지각이 융합되어 실제적이고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이다. 감각 양식 간의 관계는 언어적, 개념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나, 실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더불어 공감각은 같은 자극에 대하여 모두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개인 특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sup>38)</sup> 이 감각 정보를 설명하거나 재현하기 어렵다.

공감각은 일종의 다차원적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다.<sup>39)</sup> ‘차가운 성격’, ‘따뜻한 색상’ 등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비유들과 문학 분야에서 쓰이는 ‘공감각적 심상’ 혹은 ‘감정의 전이’가 이 스펙트럼 가장 하층부를 구성한다. 스펙트럼의 최상단부에는 공감각의 원형(原型)인 소리의 색, 음소의 맛 등의 지각적 공감각이 차지하고 있다. 층 사이 공감각적인 요소들은 오늘날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오감(五感) 중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하거나 결합한 형태인 다(多)감각에 관하여, ‘공감각적 재료’의 조합 및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감각적인 현대인들을 유혹하기 위해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런 공감각적 아이디어를 적극 동원한다. 미각을 돋구기 위해 붉은 톤으로 꾸민 식당, 견고해 보이기 위해 어두운 색상으로 색칠된 장비,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결합한 영상 매체 등이 있다.

공감각자들의 역사 속 활약은 더욱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열었다.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아앙(Olivier Messiaen)은 색환각(chromesthesia)이라는<sup>40)</sup> 공

36) 공감각(共感覺) -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 또는 그렇게 일으켜진 감각. 소리를 들으면 빛깔이 느껴지는 것 따위이다. 「표준국어대사전」

37) 사실 공감각은 빛, 소리, 맛, 냄새, 온도, 무게, 압력, 고유감각 등의 감각 양식(modality)의 융합이다. 리처드 사이토워 저, 조은영 역, 「공감각」, 『김영사』 [e-book]

38) 리처드 사이토워, 위의 책

39) 리처드 사이토워, 위의 책

감각적 능력을 활용하여 새의 지저귀음을 채보하여 풍부한 화성의 곡을 만들었다. 또한, 대문호 괴테, 하이네, 뮐러의 시에 감명받아 거기에 음을 붙인 독일의 예술가곡 ‘리트(Lied)’, 인상파 회화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쓴 시에 곡을 붙인 프랑스의 예술가곡 ‘멜로디(melodie)’는 음악계를 오랫동안 매료시켜 온 공감각적 장르이다.

연구자의 작품은 기억이나 감정을 다양한 지각의 결합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연구자가 교차문화 정체성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데에는 다문화 배경과 문화적 응이라는 경험과 관련되었다.<sup>41)</sup> 【작품1】은 노스텔지어라는 감정을 후각적 정보를 통하여 재현한 작품이다. 그 외 【작품6】을 제외한 작품 대부분은 촉각적 요소와 시각 요소를 결합한 부조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작품2】에서는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요철(凹凸)이라는 촉각적 요소로 표현하였다. 관람자들이 교차문화적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작품을 만짐으로써 거친 연구자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며 그들이 천천히 만져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연구자는 과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감정적 압박을 물리적인 무게로 체감한 경험이 있는데 【작품6】을 통하여 이 공감각적 경험을 다시 시각적, 청각적 작품으로 그 압박감을 표현하였다. 【작품6】의 음악은 전시를 관람하는 내내 전시 공간의 사운드로써 관람자에게 감정을 제시하고 공간과 시간의 범위를 제안한다. 예술이 그렇듯 특히 공감각적인 예술 표현은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감각, 감정, 그 밖의 미묘한 것을 외현(外現)하게 하는 창조적 도구가 된다. 신체의 모든 부분은 유기적으로 얽혀있지만, 인간은 이를 분류하고 분리하였다.

---

40) 색환각(chromesthesia) - 색채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외의 감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41) 이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심야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질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한다. (...) 많은 냄새와 이상한 음과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고 이상한 상황에도 많이 처해보아서, 살아가는 내내 이들은 신문에서 기사나 TV에서 기사를 볼 때 그 냄새가 없는 평면의 이미지들이 내면에서는 3차원의 파노라마 영상 쇼로 바뀐다. 직접 그 장소에서 냄새들을 맡고, 맛을 느끼고, 땀을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데이비드 풀락, 루스 반 레켈 저, 박주영 역, 『제3문화 아이들 : TCK : 세계에서 성장하는 경험』, 『비즈니스』, 2008, p. 115

공감각은 이 분류가 인위적임을 밝히는 증거가 아닐까? 공감각을 통하여 이성이라는 프레임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이는 모호한 경계 주변부에서 성장하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차문화 정체성을 닮았다.

## 2. 작품 표현 방법

### 1) 후각 자극과 기억의 재생

홍차를 적신 마들렌 향은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에게 어릴 적 먹었던 마들렌의 향을 떠올리는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 작용은 그의 성공작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된다. 여기에서 비롯하여 후각 자극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효과를 프루스트 효과(Proust Effect)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미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코비드(COVID-19)로 인해 오랜 시간 실내에 머물게 되면서 향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sup>42)</sup> 나라나 브랜드 관계없이 백화점 1층은 향수나 비누, 혹은 화장품 판매대를 배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포공항은 유칼립투스 향을 통해 보안검색장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이 편안함을 느끼기를 유도하고, 스타벅스는 전 직원에게 프래그런스 제품을 제한시켜 매장 내 커피 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sup>43)</sup> 뇌신경학계에 의하면 후각신경계와 기억을 주관하는 뇌 영역이 연결해 있으므로<sup>44)</sup> 이런 마케팅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복잡한 감각계를 잘 활용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특정 지역의 특징을 향으로 파악하여 기억하거나 습도를 향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감각적 기억을 되짚어 보며 특정 향을 재현한다면, 표출되지 않은 순수 기억을 이미지-기억으로 꺼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자의 【작품1】은 이러한 가설로부터 시작된 작품으로써 기억에 남아있던 프랑스와 한국의 확연한 향의 차이를 재현한다면 연구자가

42) 「“향으로 힐링해볼까”...지금은 ‘향기 마케팅’ 전쟁 중」, 『이뉴스투데이』, 2024

43) 안옥희, 「향기 마케팅의 세계... 향기에 취해 지갑 여는 소비자들」, 『한경 BUSINESS』, 7.21.2020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07210530b>)

44) 박세진, 「무후각증으로 유발된 기억 및 학습장애에 대한 ascorbic acid의 영향」, 『강원대학교』, 2007. p. 1

느꼈던 흥미함이 살아나리라 생각했다. 향은 주로 마케팅의 도구로 자주 사용되므로, 【작품1】의 향은 전시 전체의 분위기를 설정하며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헛꽃이기도 하다.<sup>45)</sup> 노스텔지어를 상징하는 동백꽃으로 우드스틱을 꾸미고 재료와 제목을 적은 태그를 병목에 달아 작품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보이게 설정하였다.



【작품1】 fumet

45) 열매 맺지 못하는 꽃. 「표준국어대사전」

## 2)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지속성

압도적인 감정의 휘몰아침은 종종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다. 나라, 이별, 이사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 겪은 이주(移住)의 결과는 괴로움이었다. 완전히 변해버린 삶 속에서 혼란, 불안, 고립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저 일상이라는 것이 이토록 수고스럽다고 여기며 참아왔다. 초등학교 시절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학교 적응과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하늘이 몸을 짓누르고 땅이 발목을 잡아끄는 듯한 증상을 느꼈다. 목과 등 근육은 뻣뻣하고 코에서는 반짝거리는 느낌과 함께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가려 하지만 두 다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한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정이 압박, 무게, 촉각 자극, 후각 자극 등으로 표출된 공감각 체험이었다.

이 경험과 감정을 시청각 작품으로 담은 것이 【작품6】 <sans arrêt(끊임없이)>이다. 이 작품에서 연구자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출구가 없는 터널 속, 어둡고 끝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 작업은 한 동작과 다음 동작 사이의 프레임마다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시작과 끝의 값만을 입력하여 생성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나서 시작과 끝부분을 잘라버리고 중간 부분만을 선택하여 작품이 되었다. 게다가 이 결과물을 루프 재생함으로써 작품이 재생되는 한 교차문화 아이들 출신으로서의 연구자의 고민이 영속됨을 표상하도록 의도하였다.

베르그송 음악의 재생은 지속 그 자체라고 하였다.<sup>46)</sup> 음악은 음표와 쉼표의 조합이다. 음악에서의 쉼은 소리 없음이나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쉼 그 대로 하나의 음악이다. 따라서 연주가 시작된 이상 음악은 항상 지속됨을 의미

46) 박영욱의 생활에서 만난 철학 「앙리 베르그송 -‘몸이 곧 프레임이다’」, 『월간중앙』, 2014,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3128>

한다. 따라서 교차문화 경험자들에게 이주라는 하나의 사건이 그들의 삶에 끼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의 지속성을 작품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예컨대 음악이 교차문화 정체성의 삶이고 다문화적 경험들은 음표이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같은 장애요인은 침표라고 볼 수 있다.

이 음악이 전시 디스플레이 세션 중에서 ‘현재 - le moi qui coule(흐르는 자아)’ 세션에서 흘러나와 전시장 전체로 울려 퍼지도록 함과 더불어, 이 세션 중 연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작품인 【작품6】에 음악을 붙였다. 이로써 음악은 현재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나타내며 현재를 지정하고 시간과 현재를 늘 의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시장 안뿐만 아니라, 전시장의 영역을 벗어난 곳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효과는 유효하며 연구자의 상황과 경험과 감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현장에서 재생하면서 발생하는 잡음과, 문을 여닫는 행위로 인한 사운드의 변화도 이를 위한 장치가 된다.

교차문화 정체성의 대표 정서인 노스탤지어를 곡에 포함하기 위해 프랑스와 한국의 옛 노래를 융합한 음악을 만들었다. 연구자의 정체성이 그렇듯, 양국의 멜로디는 사뭇 구별되기도, 헛갈리기도 한다. 연구자의 정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크 시대의 지속적인 저음부를 연주하는 기법에 착안하였고 통주약기<sup>47)</sup> 대신 저음의 음향을 응용하여 삽입하였다. 킁음 및 심장 박동 소리를 음악 저변에 깔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자아의 불안함, 유동성, 진행성을 강조한 것이다.

---

47) 통주약기(contínuo instrument) - 바로크 시대, 하프시코드, 오르간, 류트 등으로, 음악 저변에 계속해서 깔리는 반주를 담당한다. J. Peter Burkholder 외 2인, 「A history of Western Music」, 『Norton』, 2006, p. 301

### 3) 회화, 벽의 경계를 넘어

만 오천여 년 전, 인간은 깊고 좁은 동굴 속에 그림을 그렸다. 동굴 벽의 그림은 점차 벽에서 분리되어 나무판자 위로, 직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회화의 탄생부터 발전 과정을 보면 부조(浮彫)와의 연관성이 깊다. 동굴의 우돌투돌한 표면도 부조라고 할 수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명암법은 인간의 신체적 부조를 표현하려는 연구의 산물이다.<sup>48)</sup>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매끈한 표면이 필수였던 16세기의 화가들에게 캔버스의 씨실과 날실의 텍스처는 누르고 덮어 없애야 할 성가신 요철로 여겨지게 되었고<sup>49)</sup> 이 요철은 일종의 저부조이다. 또한, 보조제를 이용한 마티에르(matière)는 회화의 볼륨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입체파의 파피에 콜레, 다다이즘의 콜라주와 포토몽타주에 이어, 로젠버그(Robert Rausenberg)의 콤바인 페인팅과 뒤뷔페의 오브제를 통하여 회화는 곧 2차원이라는 회화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가 과거 여러 문화를 흡수하는 문화 융합(hybridity)의 과정과 연구자의 현주소인 문화적 주변성(cultural marginality), 그리고 교차문화 아이들 출신으로서 말아야 할 가교적(架橋的) 역할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이 과정은 회화가 동굴 벽으로 되돌아가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며 시각적 작품에 촉각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분되고 인위적인 프레임을 벗겨내는 공감각의 탈환이다. 따라서 회화가 자신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이 궤적은 뿌리를 찾으려는 교차문화 정체성과도, 감정을 공감각적으로 통감하는 본인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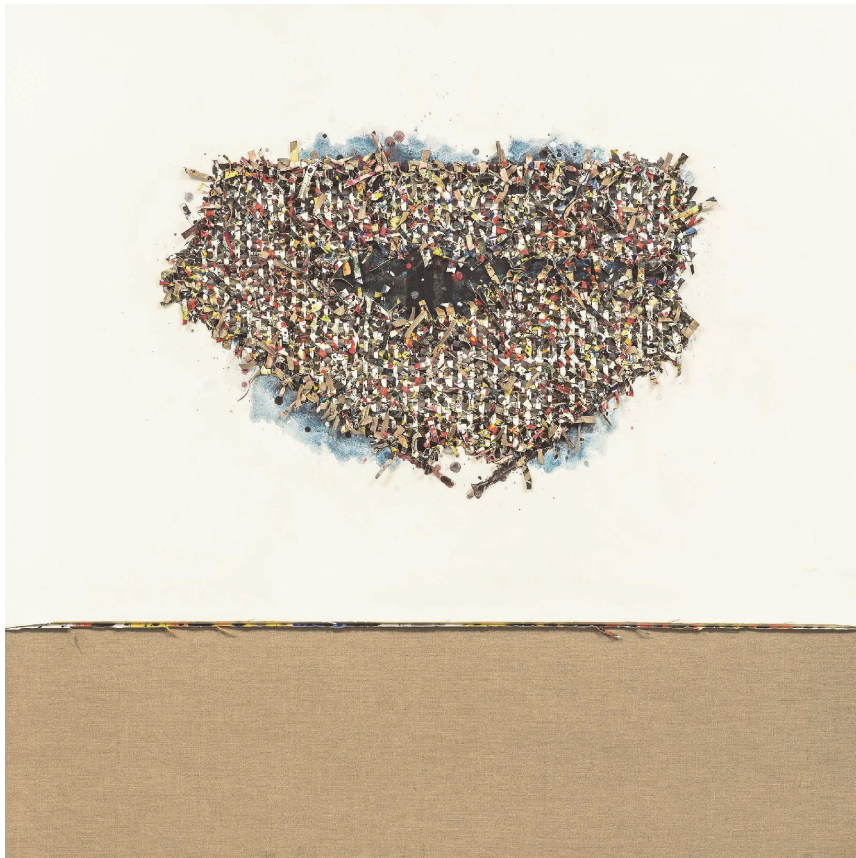
신성희<sup>50)</sup> 작가는 회화의 평면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힘쓴 예술가이

48) 릭 브누아 저, 민계숙 역, 「Que sais-je ? 회화의 역사」, 『탐구당』, 2004, p.99

49) <The Evolution of Preparation for Painting on Canvas in Sixteenth Century Spain>, 《Museo Nacional del Prado》, (<https://www.museodelprado.es/en/learn/research/studies-and-restorations/resource/the-evolution-of-preparations-for-painting-on/39cd7ac1-b445-49da-9362-61dbc19c5ed8>)

50) 신성희(1948~2009) :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1년 한국미술대장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화가로 캔버스를 찢고 엮는 'nouage(누아주; 맺기)' 기법을 고안했다. (<http://galleryhyundai.com/exhibition/view/20000000049>)

다. 작가는 회화의 절대 공간인 캔버스를 통하여 평면과 입체의 합일을 도모하였다. 캔버스를 찢고 꿰매고 묶음으로써 회화의 '몸'을 형성하고 직조된 공간에서 색채를 공명시킨다. 색채와 직조는 뼈대로서 견고한 화면을 이룬다. “나의 그림은 찢기기 위하여 그려진다.”라는<sup>51)</sup> 작가의 말처럼, 작가는 캔버스를 물리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회화가 갖는 평면성까지 해체해 버리는 것이다.



【도판4】 신성희, <Solution de continuité (연속성의 해결)>, 캔버스에 아크릴, 1998

51) Shin Sung Hy - 《갤러리현대》 (<http://galleryhyundai.com/exhibition/view/20000000049>)

연구자는 전시를 통하여 회화의 상징이자 부조화(浮彫化)된 오브제인 캔버스 위에 마띠에르, 파피에 콜레, 콜라주 그리고 종이를 반죽으로 만들어 소조를 올리는 형식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종이상자를 재료로 사용했다. 상자란 물체를 담아두거나 나를 수 있도록 만든 네모난 그릇으로<sup>52)</sup>, 종이상자를 작품에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카소와 브라크는 작품과 물질을 만나게 하였고 그 원조는 종이를 풀로 붙이는 것(파피에 콜레)이므로 종이라는 상징적 재료를 의도했고 둘째,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상자 안에 담겨 있으므로 상자가 갖는 이미지가 노스텔지어라는 본 연구의 정서와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물질의 범람과 국제화 그리고 코비드로 인한 국제택배의 성행 등 이러한 현재 시국에 상자의 이동성은 한마디로 ‘물질의 노마디즘’으로, 교차문화 아이들의 삶을 시사할 만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작품을 위해 사용된 상자는 택배 상자와 달걀판이며, 모두 쓰레기를 재활용한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교차문화 아이들은 고향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는 지구를 고향에 대입하여 지구를 아끼기 위한 재활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몸소 재생과 재활용을 실천하였다.

---

52) 상자 - 「표준국어대사전」

### 3. 작품 분석

어린 시절 이주로 형성된 정체성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됨을 표현하기 위해 베르그송의 기억과 지속의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였다. 정체성의 지속과 자아의 성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10개의 작품을 과거, 현재, 미래 세 개의 세션으로 분류하며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자아가 흘러옴을 말하고자 하였다. 세션별로 달린 부제는 각 세션의 메인 아이디어를 명기한 것이며, ‘과거 - le souvenir(기억)’ 세션에 세 작품(【작품1】, 【작품2】, 【작품3】), ‘현재 - le moi qui coule(흐르는 자아)’ 세션에 세 작품(【작품4】, 【작품5】, 【작품6】), ‘미래 - l’avenir potentiel(잠재적 미래)’ 세션에 네 작품(【작품7】, 【작품8】, 【작품9】, 【작품10】)을 구성하였다.

#### 1) 과거 - le souvenir(기억)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날이었다. ‘아, 베, 쎄, 데’<sup>53)</sup> 대신 ‘에이, 비, 씨, 디’라고 외는 반 친구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연구자에게 알파벳이란 곧 프랑스의 문자였기 때문이다. 성탄절을 ‘노엘(noël)’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로, 생선을 ‘뽀와송(poisson)’이 아니라 ‘피시(fish)’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과 여태까지 연구자가 알고 있던 단어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에 놀랐다. 더 큰 충격은 이 유치원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서 알파벳이란 곧 영어라는 사실이었다. 한글과 프랑스어의 차이에서 오는 충격보다, 프랑스어와 영어의 차이에서 오는 충격이 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연구자는 프랑스의 유치원에<sup>54)</sup> 입학하여 모국어로서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던 와중에 한국어로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와 영어는 로망스어로, 유사

53) 프랑스어 알파벳 ‘a, b, c, d’를 외는 발음이다.

54) 프랑스는 만 3세부터 에콜 마테르넬(école maternelle)에 진학한다.

점이 많으므로 영어에 관련된 일화에서 혼돈이 컸다.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부딪혔던 경험도 있다. 6살 무렵, 한 친구가 연구자에게 ‘까까’를 주겠다고 하며 같이 나누어 먹자고 했다. 하지만 연구자에게 ‘까까’는 현재까지 단 하나 뜻으로만 전달된다. 똥(caca)이라는<sup>55)</sup> 뜻으로 말이다. 연구자와 외형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이 집단은 ‘삐삐’ 머리를 하고 ‘까까’를 먹는 집단, 연구자와는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완벽한 타자임을 깨달았다.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이 기이하다고 생각했다.<sup>56)</sup>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면 그 속에 비친 동양 어린이의 모습에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연구자는 프랑스에 돌아가기만 하면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문제가 사라지리라 생각했다. 성인이 되어 약 2년간 프랑스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연구자는 프랑스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했고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스스로 프랑스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연구자의 외모는 프랑스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생겼고, 오히려 한국 사람과 똑 닮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구자에게 부족한 것은 프랑스다움인가 한국다움인가? 연구자는 언제까지 양국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가? 프랑스를 떠나며 받은 충격과 이별, 생활 환경의 급작한 변화, 한국에 처음 와서 겪었던 문화충격과 문화 적응 스트레스, 뿌리 없음의 불안으로 점령되었던 과거 이야기를 ‘과거 - 기억(le souvenir)’ 세션에 엮었다. 관련 기억과 감정을 후각, 촉각, 시각적으로 표상한 세 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

55) 삐삐-까까-도도(pipi-caca-dodo) : 프랑스어 구어체.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로 각각 ‘쉬-응가-코코’를 뜻한다.

56) 「제3문화 아이들」의 저자이자 ‘교차문화 아이들’이라는 용어를 만든 루스 반 레켄은 교차문화 아이들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문화와 다른 정체성을 찾으려 애를 쓰는데 이를 ‘screamer(스크리머, 비명을 지르는 자)’라고 명명하였다. (<https://www.crossculturalkid.org/who-are-cross-cultural-kids/>)



【작품1】 fumet

**【작품1】 fumet(냄새)**

① fumet coréen(한국 냄새), ② fumet français(프랑스 냄새)

**제작연도** : 2024

**작품크기** : 2종의 디퓨저, 각 80ml, 4.5×4.5×22cm

**작품재료** : 아로마 에센스 오일, 채소 혼합, 공병, 폐상자, 한지, 우드스틱

**제작방법**

1. 김치, 양파, 마늘, 고추, 깻잎, 김, 파슬리, 허브 혼합(2018년 프랑스 현지에서 구매)을 잘게 다진다.
2. 두 국가의 향을 분리해야 하므로 통상적인 분류상 분리한다.
3. ① fumet coréen를 위해 한국의 재료(김치, 양파, 마늘, 고추, 깻잎, 김)와 ② fumet français를 위해 프랑스의 재료(양파, 마늘, 파슬리, 허브 혼합)를 따로 정리한다.
4. 들기름, 참기름은 다듬은 한국재료에, 버터는 프랑스 재료에 섞어 3일간 재워둔다.
5. ① fumet coréen을 위해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동백꽃을 디자인하고 ② fumet français를 위해 가드니아를 디자인한다. 각각 제목과 재료, 용량을 ml(밀리리터) 단위로 적고 디자인 해둔 동백을 정렬한 뒤 크라프트지에 인쇄하여 디퓨저용 태그를 만든다.
6. 베이지색 한지 끈과 백색 한지 끈을 이용해 꽃을 만들어 발향을 도와줄 우드스틱을 장식한다.
7. 태그를 마끈과 연결해 병목에 느슨히 묶는다.
8. 같은 종류의 갈색 공병에 각 조향된 혼합물을 조심히 따른다.

9. 각각의 병에 장식한 우드스틱을 꽂는다.
10. 확실한 발향을 위해 병 입구에 혼합물을 바른다.

### 작품설명

연구자는 후각 자극을 처리하고 이를 분류 기억하는 능력이 좋은 편이다. 냄새로 날씨와 습도를 인지하고, 시각적 정보 없이 바닷가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다. 또,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를 일찍부터 인식해 곧 화재가 일어날 것을 10분 전에 예견한 적도 있다. 이처럼 후각은 연구자가 가진 가장 민감한 감각으로, 작품에 후각 능력 및 후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이었다. 더구나 후각 자극이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프루스트 효과’는 노스텔지어를 표현하기에 알맞다고 판단하였다.

본 작품은 연구자가 기억을 통하여 향을 재현하는 ‘역(逆) 프루스트 효과’를 이용하여 조향한 작품으로, 향에 의해 관람자는 프루스트 효과를 체험함과 동시에 전시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연구자의 노스텔지어가 목적어를 알 수 없는 까닭에, 프랑스와 한국 두 개의 냄새를 만들었다. 연구자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부모의 나라이자 국적지인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으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혼란과 불안 고립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다. 교차문화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나라를 나열하는 일, 그 나라들의 순위나 순번을 정해야 하는 일이 생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 그러므로 두 나라에 대하여 모두 다뤄야 했고 같은 이유로 두 개의 향을 각각 나눠 두 개의 작품으로 전시하지 않고 하나의 작품 시리즈로 설정하였다.

후각적 경험과 망각의 체험을 통해, 삶 안에 막연하게 공존하는 두 나라의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 두 나라를 표상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어떤 냄새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 그 인상은 매우 강렬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후각 자극에 대한 민감

도가 감소한다. 두 나라를 표현한 각각의 냄새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두 냄새를 구분한다. 그러나 후각 정보는 금세 사라지고 이전 냄새를 상기하기 위해 다시 두 냄새를 번갈아 맡게 된다. 이 행위가 반복될수록 두 냄새를 구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중국에는 지금 맡는 냄새가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건지 병의 태그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후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과 연접하므로 후각을 정보는 기억 및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sup>57)</sup> 따라서 작품에서 향을 잊거나 헛갈리는 것은 나라를 오가며 겪은 문화충격과 역문화충격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의미한다. 향의 정체를 재확인하기 위해 태그를 보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항상 파악하며 나아가는 교차문화 아이들의 처지를 상징한다.

---

57) 이영미, 「후각자극이 실어증자의 단어 재현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1998, p. 14



【작품2】 maternité

## 【작품2】 maternité(산부인과)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72.7×60.6×9cm

작품재료 : 캔버스, 폐상자, 계란판, 색지, 수채화 물감

### 제작방법

1. 종이죽을 올리지 않는 부분을 아크릴물감으로 채색한다.
2. 폐상자를 물에 10분간 담가 불린다.
3. 불은 폐상자를 잘게 찢는다.
4. 폐상자를 믹서에 갈아 종이죽으로 만든다.
5. 종이죽과 오공본드, 도배용 풀을 섞는다.
6. 작업해 둔 캔버스에 종이죽으로 임신부의 형상으로 부조로 소조한다.
7. 종이죽을 덜거나 덧붙여 건축물의 표면을 표현한다.

### 작품설명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연구자는 유아기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 온갖 교차문화적 증상은 다 겪으면서도 막상 태어난 곳의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것이 오랫동안 연구자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다. 연구자가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는 실질적 증거는 빛바랜 사진과 실체가 없는 부모님의 증언 뿐이었다. 태어난 산부인과는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상상 속 존재였다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된 뒤로부터는 즐겨찾기로 지정해 가끔 찾아보는 가상 공간 속 세계가 되었다. 연구자는 기억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을 듣고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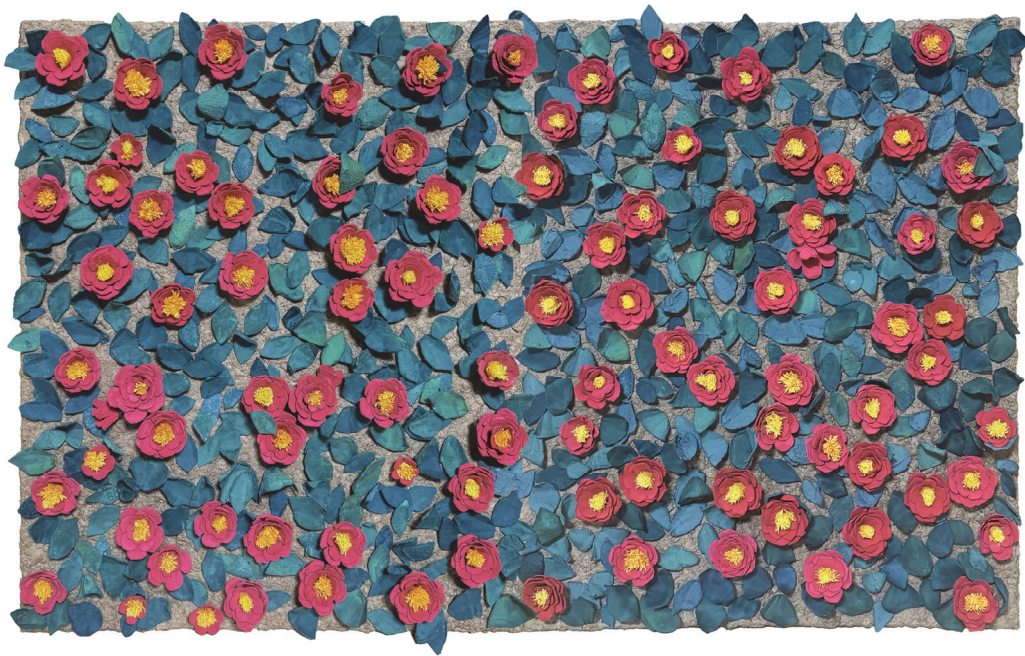
하고 외웠다. 순수 기억을 이미지-기억화 시키기 위해 습관 기억을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태어난 곳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나 처음으로 여행한 곳은 그 산부인과였다. 산부인과의 당시 명칭은 ‘마떼르니떼 레지오날 드 로렌느(Maternité Régional de Lorraine; 로렌 지방 산부인과)’였고, 이후 ‘쎄.아쉬.에르.위 낭시(CHRU Nancy; Centre Hospitalier Régional Universitaire de Nancy; 낭시 지역대학 중앙병원)’로 바뀌었다. 현지에서는 ‘마떼르니떼 레지오날(Maternité Régional; 지방 산부인과)’ 혹은 ‘마떼르니떼(maternité; 산부인과)’라고 부르고 있다. 이야기와 인터넷이라는 가상에서만 알고 있던 장소를 처음 눈앞에 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본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립감이 밀려왔다. 산부인과는 태어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도시, 태어난 나라, 태어난 날짜, 태어남을 의미한다. 연구자가 한국어 악센트로 프랑스어인 ‘마떼르니떼’를 발음하는 것은 나, 자아, 정체성을 규명하는 첫 행위였다.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태어난 산부인과 단위까지 기억하고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자도 그 건물 바로 앞에 서서 현판을 읽으며 첫 발음으로서 나 자신을 규명했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하여 당시 감상의 세부적인 것을 모두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롤랑 바르트가 정리한 ‘스튜디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폰크툼’<sup>58)</sup>을 표현한다. 대부분 사람에게, 설령 그 건물에서 태어났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건물은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 한 채일 뿐이다. 하지만 연구자에게 그 건물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첫 관문이자 세상으로 통하는 첫 번째 문, 바로 어머니 그 자체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눈

---

58) 스튜디오(studium)과 폰크툼(punctum)은 롤랑 바르트의 저서 「카메라 루시다」에 소개되는 개념쌍. 스튜디오는 ‘열정, 관심, 취향, 연구’ 등을 뜻하는 studeo(「dictionnaire Gaffiot」 라틴어-프랑스어 사전)에 명사형 접미사 -ium가 붙은 명사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폰크툼(punctum)은, 라틴어로 ‘구멍’, ‘관통’을 뜻한다. 원어 첫 네 글자를 보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 ‘핑크’를 연상시키면 이해하기 한층 쉽다. 주로 사진 등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감정으로, 주로 슬픈 감정으로 묘사된다.

앞에 떠오르는 진녹색과 연구자를 향해 돌출하는 수태 중인 어머니의 형상이 건물에 겹쳐 보인다. 그 건물은 한참 만에 연구자의 교차문화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품 1호이며, 스스로 애초부터 인지해 왔던 ‘교차문화 정체성’을 증명함으로써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증거품이다. 어머니의 볼륨에 건물의 표면을 더하고 ‘마떼르니떼’라고 명명하는 행위는, 한 아이가 거울을 처음으로 마주해 제 모습을 들여다보는 행위와 같다.



【작품3】 vagues vagues

【작품3】 vagues vagues<sup>59</sup>(막연한 밀려듦)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72.7×121.2×7cm

작품재료 : 캔버스, 폐상자 종이죽, 계란판, 색지, 수채화 물감

### 제작방법

1. 달걀판을 소독한 뒤 달걀이 담기는 오목한 부분을 활용하여 동백꽃 한 송이 모양으로 자른다. 이를 반복한다.
2. 달걀판 가장자리나 자투리 부분은 이파리 모양으로 자른다.
3. 수채화 물감으로 동백꽃 모티브와 이파리의 색상을 구분해 색칠한 뒤 하루 동안 말린다.
4. 마른 동백꽃 모티브를 접착제를 이용해 겹겹이 붙여 겹 동백꽃을 만든다.
5. 노란 색지를 잘라 꽃술을 만든 뒤 꽃술과 겹 동백꽃을 붙인다.
6. 폐상자를 물에 10분간 담가 불린 뒤 폐상자를 잘게 찢는다.
7. 폐상자를 믹서에 갈아 종이죽으로 만들고 종이죽과 풀을 섞는다.
8. 준비된 캔버스 두 개 위에 폐상자 종이죽을 붙여 흠처럼 표현하고 3일 이상 건조한다.
9. 그 위에 이파리와 꽃을 붙인다.
10. 두 개의 캔버스를 연결한다.

---

59) 제목에 쓰인 두 번의 ‘바그(vague)’는 동음반복이 아니라 프랑스어로 서로 다른 품사와 다른 의미의 동음이의어를 병렬 표기한 것이다. 앞의 vague는 명사로, ‘물결’, ‘파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감정, 유행, 흐름 등)’을 의미하고, 뒤의 vague는 형용사로 ‘불분명한’, ‘어렴풋한’, ‘희미한’, ‘막연한’을 의미한다(프랑스어는 수식어가 뒤에 오는 경우가 많다).

## 작품설명

열 살 무렵, 목적어 없는 노스텔지어와 씬 없는 노마드를 종식하고자 연구자가 택한 방법은 한국 즉 뿌리에 집착하기였다.<sup>60)</sup> 가장 첫 번째 시도는 부모를 닮은 동양적인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었는데, 연구자는 가끔 혼혈인으로 오해받기도 해 금세 다른 요소를 찾아야 했다. 피는 가족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연구자의 뿌리는 가족 자체라고 보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이 연구자와 달라 오히려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었다. 가정 안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한국에 처음 왔을 즈음의 기억을 더듬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살게 된 집은 조부모님 덕이었는데, 거실에 커다랗게 놓인 동백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한겨울에 태어나 삭막한 풍경의 생일을 보내던 연구자가 제 생일 때쯤 피는 붉고 탐스러운 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지나 동백나무는 우리 집으로 대물림되었고, 어느 날 옆 화분에 씨가 떨어졌는지 작은 동백 싹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여러 그루의 동백나무가 집 안에서 자라고 있다.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나무 한 그루가 퍼지는 모습 보며 동백이 연구자의 뿌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족의 동백에 대한 애정 또한 대물림되는 것을 보면서, 연구자의 동백에 대한 사랑이 뿌리에 대한 증거라고 여겼다. 계승된 동백은 곧 가족과 핏줄의 현현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동백나무는 동양의 온난한 지역에서 자라며 초겨울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향이 없어 벌레를 유혹하지 못하는 대신, 선홍색의 보드랍고 탐스러운 꽃과 그 중심에 동그랗게 모인 풍성하고 샛노란 술들이 새들을 유혹한다. 향기 없는 꽃, 겨울에 피는 꽃, 벌레 없는 꽃인 동백을 응시하며 남다르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아이, 그곳에서는 동양에서 온 아이, 가족 사이에서도 온전

---

60) 루스 반 레켄은 교차문화 아이들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문화와 동일한 정체성을 찾으려 애를 쓰는데 이를 'chameleon(카멜레온)'현상이라고 하였다. (<https://www.crossculturalkid.org/who-are-cross-cultural-kids/>)

히 이해받지 못하는, 남다른 아이라는<sup>61)</sup> 처지를 투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동백이었다. 종이죽의 색과 질감은 진 땅의 그것과 비슷하여 이를 활용해 종이죽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달걀판으로 만든 동백꽃을 심듯이 붙였다. 이 행위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 땅에 연구자의 그리움을 심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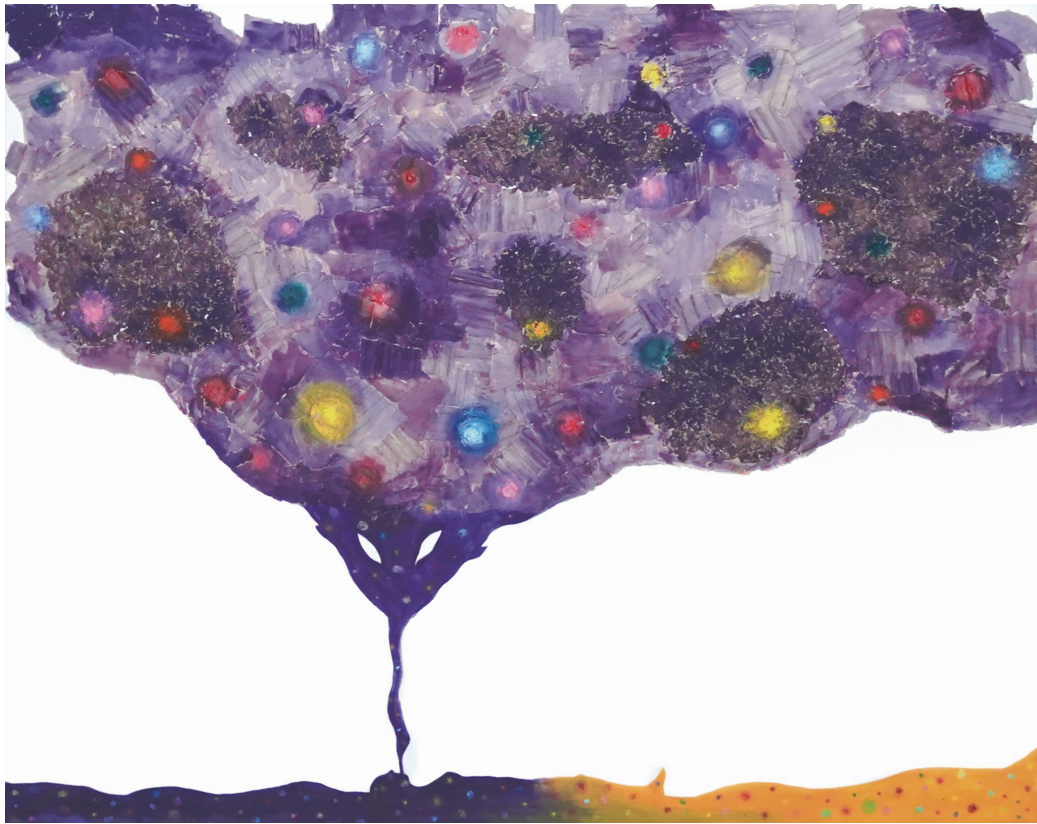
61) 루스 반 레켄은 교차문화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일지라도 같은 정체성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인종이나 민족보다는 오히려 유사한 경험을 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https://www.crossculturalkid.org/who-are-cross-cultural-kids/>)

## 2) 현재 - le moi qui coule(흐르는 자아)

연구자의 작품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한 것은 이 세션들끼리 서로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벽이 3면인 전시장에 벽 하나당 하나의 세션을 전시함으로써 오히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전시장 정 가운데 서면 세 세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맞은편 작품끼리, 혹은 나란히 위치한 작품끼리 관계성을 파악하며 연구자의 감정 변화를 인지하기 매우 쉽다. 작품과 작품 사이에 어떠한 단절이나 구분도 없으며 이 분류는 오히려 상호관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작품과 작품 사이 전시장의 하얀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연구자의 감정과 사유의 흐름이며 삶의 흐름으로써 지속된다. 따라서 루프 영상 형태인 【작품6】을 과거 - le souvenir(기억) 세션과 현재 - le moi qui coule(흐르는 자아) 세션 사이의 벽에 설치하여 전시를 마칠 때까지 재생했다. 현재는 지속해 온 과거로부터 흘러온 것이다. 연구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지속하고 있다. 단절되었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은 사실상 이어져 있고 기억되어 현재의 나를 만든다.

전체 삶에 비하자면 외국에서 산 시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순간이라고 여겨졌던 기억들이 연구자에게 교차문화 아이들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다. 어떠한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깊은 자아는 계속해서 흘러왔고 성인이 되었다. 표면적으로 단절되었어도 내면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어져 온 순수 기억은 나라는 존재로서의 지속이며 현재의 나를 이루는 중이다. 교차문화 아이들로서 축적된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빛어지고 다듬어진다. 삶에서 겪은 경험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기정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자아는 시나브로 변한다.



【작품4】 Mme. Insomnie

#### 【작품4】 Mme. Insomnie<sup>62)</sup>(밤 친구)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100×80.3×5cm

작품재료 : 캔버스, 폐상자, 폐상자 종이죽, 아크릴물감, 수채화 물감

#### 제작방법

1. 캔버스 위에 아크릴물감으로 자아의 모습과 밤 친구의 모습을 그린다.
2. 폐상자를 10분간 물에 불린 뒤 다양한 크기로 찢는다.
3. 밤도깨비 위의 부푼 부분에 다양한 크기로 찢어둔 폐상자 조각을 붙인다.
4. 그림 위에 폐상자 종이죽을 붙여 부조성을 부여한다.
5. 폐상자 조각을 붙인 부분을 분무기를 뿌려 적시고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다.
6. 기억을 비비드한 색상으로 표상<sup>63)</sup>한다.

#### 작품설명

베르그송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멸했다고 간주하는 기억들이 꿈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sup>64)</sup> 꿈을 꾸면서 사람은 자신의 과거 역사의 무수한 것,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하며 한 이미지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남긴다. 그러면서 한 이미지가 다른 어떤 이미지와 무엇이 다른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보려고 할 것이다.<sup>65)</sup>

---

62) Mme. Insomnie : Mme.은 여성의 이름 앞에 붙이는 호칭 Madame의 줄임말이다. 프랑스어 'insomnie'는 불면이라는 뜻으로 여성 명사이므로. 이 단어 앞에 Mme.을 붙여서 의인화하고 호칭을 붙임으로써 연구자와의 관계를 특정했다.

63)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낸다. 표준국어대사전

64) 베르그송 저,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p.172

65) 위의 책, p265

베르그송의 꿈에 대한 철학에 연구자의 자아관을 버무려, 꿈꾸는 사람을 자아상으로 대치시켰다. 자아의 의식은 유동하는 유기체이므로 세포나 별 등의 상징을 본떠 표상하였다. 자아가 누워 있는 바다는 자아의 본질, 즉 심원한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 깔린 순수 기억으로 이루어진 바다다. 무의식의 심해에 부유(浮遊)하며 잠든 자아는, 밤에 찾아온 밤의 친구에게 특정 기억과 온기, 긍정적인 기운 등을 빼앗긴다. 연구자의 자아상이 지닌 본질은 불안과 부정과 한기이므로, 자아는 그것으로 점령된 푸른 몸뚱이를 가지게 된다.

이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2017년에 지은 시가 있다. 시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친구를 ‘밤 마녀’로 표현하였는데, 제목으로 쓴 프랑스어 ‘양잠므니(insomnie)’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이다. 불면이라는 단어에 ‘마담(Mme.)’이라는 호칭 붙여서 의인화하고, 이 호칭을 통해 연구자와의 관계를 특정했다.<sup>66)</sup> 불면은 연구자를 괴롭히는 주체이며,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동의어이다.

「깊은 밤은 선물이다.

지난 사랑을 떠올리며 아이 같던 그녀를 다시 만나고

아직 잊지 못한 사람을 불러내어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눈다.

아픔 그리고 슬픔, 망설임과 부끄러움, 증오와 절규는<sup>67)</sup> 한탄이라는 폴더에  
꾸역꾸역 넣어 잘 숨겨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 벅차오름과 설렘을 즐겨찾기에 잘 쌓아 언젠가  
도 꺼내기 쉽도록 정리해둔다.

깊은 밤은 저주다.

66) Mme. Insomnie - ‘불면증 여사’ 줌으로 해석할 수 있다. Mme.은 여성의 이름 앞에 붙이는 프랑스어 호칭 Madame의 줄임말이다.

67) 루스 반 레켄에 의하면, 모든 변화에는 손실이 있기 마련이며 교차문화 아이들은 잦은 이주를 통해 상실을 경험하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분노, 우울, 반항 등이 있다. <https://www.crossculturalkid.org/who-are-cross-cultural-kids/>

그렇게 사랑했던 이들은 모두 어린 그녀를 버렸고, 소녀는 아직 잊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 못다한 눈물을 쏟아낸다.

아픔 그리고 슬픔, 망설임과 부끄러움과 절규는 그녀의 밤동무가 되어 함께 길을 걷고, 아무리 뒤척이고 뒤척여 봐도 그날 밤에 즐겨찾기 해두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 벅차오름과 설렘을 불러올 수 없다.

잠이라는 손님은 허망하게 떠난다. 꼭꼭 숨겨두었던 아픔과 슬픔, 망설임과 부끄러움, 증오와 절규가 담긴 한탄의 폴더를 들고, 깊고 차가운 마녀가 찾아와 내 긴 밤의 단골손님이 된다.

창문에서 떨어지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은, 밤새 마녀와의 분투로 지친 패잔병의 고통이며 더 가혹한 낮으로 이끄는 불쾌한 자명종이다.

밤 마녀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공포로 실신한 그녀를 따가운 낮으로 운반하는 모범 운전사다.」

시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밤이 되면 마녀가 찾아와 자신의 본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며 그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깊이 숨겼던 본질 즉, 심원한 자아의 정체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들이었으며 어둠과 동화된다. 하지만 자아는 발끝에 남은 온기와 과거의 기억으로, 밤 마녀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모두 느낀다. 감정의 전이이자 자아의 유동은 오로지 꿈을 통한 기억의 만남으로 가능하다.

감정은 불면으로, 불면은 꿈으로, 꿈은 시로, 시는 시각·촉각적 작품으로 변모한다. 감각의 변이처럼 교차문화 아이들은 거주 국가에 따라 변신한다. 시시때때로 페르소나를 갈아끼며 화려하게 변신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변신은 교차문화 정체성 그 자체이다. 이미 겪어온 태생과 삶의 과정에 의하면 연구자에게서 교차문화라는 프레임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의 교차문화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형질이 아니다. 경험-고통과 불면-작품활동이라는 정반합을 통해 서서히 자신의 성장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다.



【작품5】 L'horizon

【작품5】 L'horizon(지평)

제작연도 : 2024

작품크기 : 116.8×72.7×4.5cm

작품재료 : 캔버스, 폐상자, 아크릴물감, 수채, 슬라임

제작방법

1. 캔버스 위에 심연을 표현하기 위해 아크릴물감으로 채색한다.
2. 폐상자를 물에 10분간 불린 뒤 잘게 찢는다. 그리고 믹서에 간다.
3. 간 폐상자에 풀을 섞어 종이죽으로 만든다.
4. 폐상자 종이죽을 캔버스 정중앙에 가로로<sup>68)</sup> 붙인다.
5. 붙인 폐상자를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다.
6. 이틀간 건조한다.
7. 물, 슬라임, 액티베이터를 준비하고 습도와 온도에 맞게 슬라임의 농도를 맞춘다.
8. 캔버스 윗부분에 슬라임 혼합물을 얹어 흐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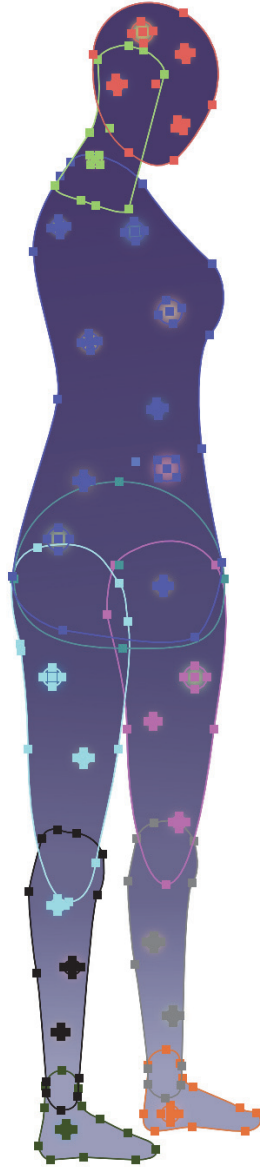
---

68) 로리종(L'horizon) - 남성 명사 1. 지평선 2. 지평선 부근 3.시계, 조망 4. 범위, 영역 5. 전망(『프라임 불한사전』, 『동아출판』) : 연구자는 이 작품의 한국어 제목으로 '지평'을 선택했는데 위에 명시된 프랑스어 단어의 모든 용법과 작품설명에서 설명한 '경계'의 의미 모두 포함한 단어가 지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작품설명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경계를 지나게 된다. 연구자는 15세 이전 3개의 국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 교차문화 아이들로 자라며 느낀 혼란 속에서, 연구자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것으로 자아의 진정성을 증명하려 애썼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학문적인 경계를 넘나들게 되었다. 다문화적 혼란에 적성의 혼란이 가중되어, '경계'라는 개념에 부정적 감정을 얻게 되었다. 앞선 작품들에서 부정적인 자아로 표현된 푸른 자아는 더욱 짙어져 검은색에 근접해진다. 세로 폭이 좁고 위아래로 긴 평편한 판을 가로지르는 붉은 경계선은 저부조로 표현하여 경계를 넘어야 할 산임을 상징했다. 캔버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슬라임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경계를 넘기도, 경계선에서 멈추기도, 캔버스 밖으로 벗어나기도 하는 자아이다. 어떤 줄기는 실처럼 늘어져 설치한 벽에 달라붙고, 어떤 줄기는 바닥에 넓게 퍼졌다. 이 작품에서 슬라임은 기억의 총합이며 의식이다, 곧 자아다. 자아상은 고정된 단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과거 즉 기억으로부터 흘러온 복수의 궤도와 잠재적인 미래로의 방향성이다.

슬라임은 촉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유동체이다. 자아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화합물을 첨가해 유동을 가속하거나 멈출 수 있다. 평편한 캔버스는 세상을 상징하고 그 위에 유독 다른 형질로 보이는 슬라임이 기어간다. 모두가 '국민성'이라는 배경에 흡수되어 살지만 혼자 티 나는 삶을 살아온 자아는 페인트 위 슬라임으로 표상된다. 하지만 경계부에서 자아는 배경과 달라진다. 배경은 경계선에 짓눌린다. 배경은 경계 아래 깔린다. 하지만 자아는 경계를 넘고, 녹이고, 파괴한다. 이 작업을 통해 다문화와 다전공을 통해 습득한 것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류와 다채로운 삶의 방향을 제안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며 다음 세션을 예고한다.



【작품6】 sans arrêt의 아바타 'Seoyuloïde ii'의 원형파일



【작품6】 sans arrêt 전시 현장 재생 촬영(벽)

【작품6】 sans arrêt(끊임없이)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애니메이션과 음악, 2'28"

### 제작방법

1.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의 머리, 목, 몸통, 왼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발,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종아리, 오른쪽 발을 만든다. 이때 요소 하나당 하나의 레이어에 작업한다.
2. 위 파일을 애프터이펙트에서 연다. 관절이 될 피벗의<sup>69)</sup> 위치를 조정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해 본다.
3. 로직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곡을 만든다.
4. 영상과 음악을 합친다.
5. 프로젝터에서 루프<sup>70)</sup> 설정하여 출력한다.

### 작품설명

과거와 현재 세션 사이의 벽 정중앙에 이 작품을 위한 프로젝트를 설치했다. 이 설치의 이 작품이 과거로부터 지속하는 자아이며 끊임없이 현재를 걷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전시장 전반에 흐르는 음악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위해 의도하였다. 교차문화 아이들이라는 경험과 기억이 현재의 자아를 이룬 것처럼, 지속하는 기억이 관람 시점인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를 꾀했다.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 외에도, 음악이 들리는 전시장 반

69) 회전축. 물체의 회전을 결정하는 핸들이다.

70) 사용자가 정한 처음과 끝 지점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 「우리말샘」

경의 모든 사람에게 음악은 현재로서 영향을 미친다. 이 설치는 연속으로서의 시간, 지속을 상징한다. 베르그송에 의하면 음악의 재생은 지속 그 자체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또한 그렇다. 애니메이션은 시작값과 끝값만 입력하여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장의 사진을 적당한 인터벌로 노출하여 눈속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작과 끝까지 끊임없이 연속되는 움직임이다. 루프 재생을 설정함으로써 본 작품은 지속의 상태에 영원히 재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재생되는 한 교차문화 아이들로서의 연구자의 고민은 영원히 지속하고 관람자들은 이것에 노출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 걷고 있는 것은 【작품4】의 그 자아임과 동시에 동일한 자아가 아니다. 【작품4】의 자아는 연구자의 자아상으로 그림의 형태로 실존한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걷는 자는 가상공간에 있는 존재로, 연구자를 대신해 작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가상의 자아에 Seoyuloïde ii라는<sup>71)</sup> 이름을 붙였다. Seoyuloïde ii는 행위와 존재로서 외부에 표출된 연구자의 기억이다. Seoyuloïde ii의 색상은 작품4와 작품5의 자아처럼 푸르다. 고개는 땅을 향해 떨어졌다. 등은 굽고 찢뚝찢뚝 걷는 두 다리는 마치 돌덩이를 매단 듯 느리다. 이 증상을 처음 인지한 만 6세 무렵부터 서른 중반까지 연구자가 이따금 느끼던 감각을 Seoyuloïde ii를 통해 시각화한 것이다. 너른 곳을 걸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걸을 때마다, 연구자는 무거운 타이어를 발목에 매단 채 끝도 없고 시작도 모르는 길을 걷는 듯한 감각에 빠지게 된다. 이때 맡은 고무 냄새로 발목에 달린 것은 타이어라고 여긴다. 연구자는 일정 지속시간, 일정 템포, 일정 거리 이상에 다다르면 어김없이 이 현상을 신체로 느낀다. 희망 없음, 답답함, 고립감의 신체화라 볼 수 있다. 이 감각을 극대화하여 전달하기 위해 작품의 배경을 디폴트 값인 검정으로 설정하여 어둠을 나타냈다.

본 작품의 사운드는 본 작품과 전시의 배경음악으로서 존재하며 전시장과 음

---

71) 연구자 자아를 나타내는 아바타이며 제작 과정상 두 번째 모델이므로 연구자 이름의 영문표기법 Seoyul에 ‘~의 형태’라는 뜻의 oïde를 붙이고 그 뒤에 ii를 추가했다.

악의 가청거리 내 베르그송의 지속을 체감시키는 장치로 존재한다. 동시에 음악 자체만으로도 교차문화 아이들로서의 연구자를 표현하는 독립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프랑스와 한국의 전통음악을 듣고 공통 요소를 수집한 뒤 최초의 악기 형태인 관악기<sup>72)</sup> 위주로 편성하고 환경을 표현하는 갖가지 소리를 추가하였다. 음악은 주제부 동기(motif)를 만들고 그것을 변형하거나 악기를 달리 연주하는 등 주제부 반복 형태를 띠며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루프 재생에 맞도록 제작했다.

---

72) 백조의 요골로 만든 본플루트(born flute) - (기원전 36,800(±1,000)년대 악기 J. Peter Burkholder 외 2인, 「A history of Western Music」, 『Norton』, 2006, p. 6)의 소리를 상상하며 주 동기를 만들었다. 실제로는 'ancient flute'의 사운드로 출력하였다.

### 3) 미래 - l'avenir potentiel(잠재적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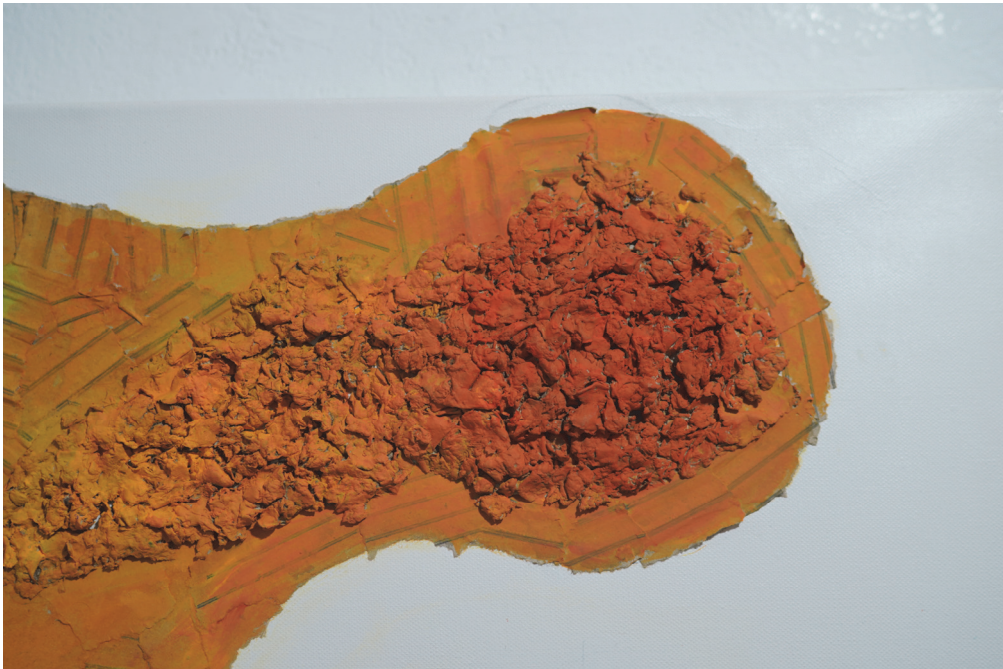
연구자는 자아가 형성되는 유의미한 시기인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에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인간 군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합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교차문화 아이들의 특성을 갖췄다. 특정 언어에 대한 실력과는 별개로 언어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인류 전체에 대한 궁금증이 크고 한 지역에 대한 애착보다는 지구 전체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다. 지구는 나의 마을이며, 지구 위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이 방대한 규모의 사랑에 허영심이 많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던 시절을 지나, 교차문화 아이들에 관한 여러 연구와 서적을 읽으며 다양한 문화의 경험 속 교차문화 아이들이 얻는 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sup>73)</sup> 마침내 어릴 적부터 간직해 왔던 가슴 속 뜨거운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갇혔던 자아는 고개를 들어 주변의 응원과 사랑을 둘러본다. 그제야 삶은 온기로 가득해지고 가족, 지인, 사회를 이해하고 포용하리라 결심한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 심장으로 지구에, 특히 연구자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교차문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연구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

73) 이들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신들의 문화역량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기회들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김혜정, 「한국 제3문화 성인아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8권 제1호, 2021.



【작품6】 lumière, lumière



【작품6】 lumière, lumière (detail cut)

【작품7】 lumière, lumière(빛더빛)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116.8×80.3×4cm

작품재료 : 캔버스, 폐상자, 아크릴물감, 수채화 물감

### 제작방법

1. 캔버스 위에 아크릴물감으로 자아의 모습과 '햇님'을 그린다.
2. 폐상자를 10분간 물에 불린다.
3. 여러 겹으로 된 폐상자의 겹을 분리해 다양한 크기로 찢는다.
4. 자아의 부푼 뇌와 '햇님' 위의 부푼 부분에 다양한 크기로 찢어둔 폐상자 조각을 붙인다.
5. 폐상자 종이죽을 이용하여 소조한다.
6. 폐상자 조각을 붙인 부분을 분무기를 뿌려 적시고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다.
7. 기억을 비비드한 색상으로 표상한다.

### 작품설명

연구자의 삶에서 빛은 생소한 것이자 기피 대상이었다. 생명 대부분은 햇빛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가 주는 따스함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연구자는 이 열 덩어리에 대해 결핍과 갈망을 느끼는 대신 성가신 존재로 치부해 왔다. 섬세한 감정에 대해 토로하고 피드백을 받을 대상이 없어, 감정이란 형이하학적이고 본능적이라 수치스러운 것으로 판단했다. 기쁨과 슬픔을 강렬히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감정을 속이고 때로는 다른 감정을 연기하거나 감정이 없는 척 연기한다. 비가 오면 그저 우산 지름만 한 어두침침하고 습한 세계에서 홀로 감정을 삼키면 그만이다. 게다가 모두가 비를 피해 각자 집으로 돌아가므로 더욱 좋았다. 날씨가 좋을 때면, 햇빛과 대조되는, 어둡고 지저분한 내면을 들킬까 두려웠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감정이 입 밖으로 표출되거나 타인에게 전달될까 두려워 애꿎은 해를 탓하고 집으로 숨었다. 낮 동안 겨우 흡수한 노란 햇빛의 온기마저 빼앗긴 자기에게는 희망을 꿈꿀 여력조차 남지 않는다.<sup>74)</sup> 이불 속에서 언젠가 나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낙이었다. 연구자에게 유일한 빛은, 이불을 덮어쓰고 밤바다 만들어 낸 글과 곡들과 그림과 그 속의 캐릭터들뿐이었다. 그것이 혼란의 생애 중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하지만 태양이 식물에 에너지를 주듯, 연구자를 지극히 바라봐 주고 응원해주며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자각했다. 지인들의 온기가 뇌에, 눈에, 귓속에 박히기 시작해 심장에까지 이른다. 그 빛을 사랑하여 좇는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은 장소가 아닌, 자신을 빛나게 해준 사람들이었음을 깨닫는다.

프랑스어로 빛, 햇빛, 깨달음을 뜻하는 명사 ‘뤼미에르(lumière)’는 연구자가 애착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빛더빛’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온라인커뮤니티의 닉네임으로, 이불 속 작가의 필명으로, 애착 대상의 자료를 수집하는 폴더명으로, 사랑하는 대상과 연구자를 지칭하는 별명 등으로 사용해 왔다. 빛에 빛을 더한다는 의미와, 빛과 깨달음이라는 의미, 빛과 비트(beat)의 의미 등 여러 뜻을 내포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어다.

---

74) 【작품4】 참조.



【작품8】 cœur

## 【작품8】 cœur(강심장)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100×80.3×4.3cm

작품재료 : 캔버스, 폐상자 종이죽, 지점토, 아크릴물감, 수채화 물감

### 제작방법

1. 부조로 표현할 부분을 제외하고 캔버스를 아크릴물감으로 채색한다.
2. 폐상자를 10분간 물에 불린다.
3. 여러 겹으로 된 폐상자의 겹을 분리해 다양한 크기로 찢는다.
4. 찢은 폐상자를 믹서에 간다.
5. 캔버스 위에 폐상자 종이죽을 붙여가며 심장의 형태를 만든다.
6. 사흘 이상 건조한다.
7. 지점토를 이용해 크고 작은 혈관을 성형한다.
8. 심장을 작품7의 햇빛 색으로 채색한다.

### 작품설명

빛이 심장에 드리웠다. 본 작품은 【작품7】의 심장부를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한 것과 같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응원과 사람들의 온기와 생기, 빛으로 자아의 차가운 몸이 녹고 마침내 심장은 햇빛의 색을 닮아가고 있다. 마음이 맑게 개어 환히 빛날 것이다. 연구자도 작품처럼 긍정을 가지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진다.

프랑스어 ‘쾨르(cœur)’는 라틴어 cor, coris가 그 어원으로, 로망어 계열에서

심장, 중심부, 코어, 용기 등도 같은 어원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심장이란 단어는 제1번 의미인 ‘인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열정, 사랑, 용기, 용감한 사람, 영혼, 내 소중한 것…’ 등을 의미한다.<sup>75)</sup> 프랑스어 제목을 확정하고 나서 한글 제목을 고민하였다. 프랑스어 단어에 심장과 용기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강심장’<sup>76)</sup>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가진 두 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겼다.

---

75) 「L'ACADÉMIE FRANÇAIS(아카데미 프랑세즈)」

76) 웬만한 일에는 겁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대담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작품9】 MATERNITE

## 【작품9】 MATERNITE(母)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72.7×60.6×2cm

작품재료 : 캔버스, 아크릴물감, 과슈

###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젯소를 여러 번 칠하고 3시간 건조한다.
2. 배경색을 어두운 녹색으로 칠하며 어머니의 형태를 그려나간다.
3. 유럽 건축물의 색상을 조색하고 그 색상으로 어머니의 형태를 그리고 명암을 넣는다.
4. 창문과 기타 건물 장식을 표현한다. 창틀은 하얀색으로, 창문은 하늘색을 칠한다.
5. 창문과 문 사이 화단을 표현하고 동백나무를 풍성하게 표현한다. 동백꽃과 동백잎을 표현할 때 과슈와 아크릴물감을 섞어 마띠에르를 올린다.
6. 바니시를 바르고 수일 건조한다.

### 작품설명

【작품2】에서는 소문자로 쓰고 본 작품에서는 대문자로 쓴 ‘마떼르니떼 (maternité)’는 프랑스어 여성 명사로 1. 어머니, 어머니임, 어머니의 자질 2. 아이를 낳다. 3. 부인과 4.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혹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를 표현한 예술작품을<sup>77)</sup> 뜻한다. 따라서 작품2에서는 3번

---

77) 「LAROUSSE」 (프랑스어 사전)

의 용법으로, 본 작품에서는 1번의 용법으로 쓰였다. 작품2가 연구자가 태어난 산부인과에 대한 폰크툼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 작품은 연구자만의 폰크툼을 다수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메타포(metaphor)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을 적용하는 것이므로,<sup>78)</sup> 개인적 감정을 다수에게 설득하는 작업, 연구자는 이 작업을 ‘메타포화 하기’라고<sup>79)</sup> 정의한다. 작품2와 비교하여 어머니의 수태 중인 형상을 더욱 구상적으로 표현한 뒤 여장군의 이미지를 씌우고 선명한 색상으로 채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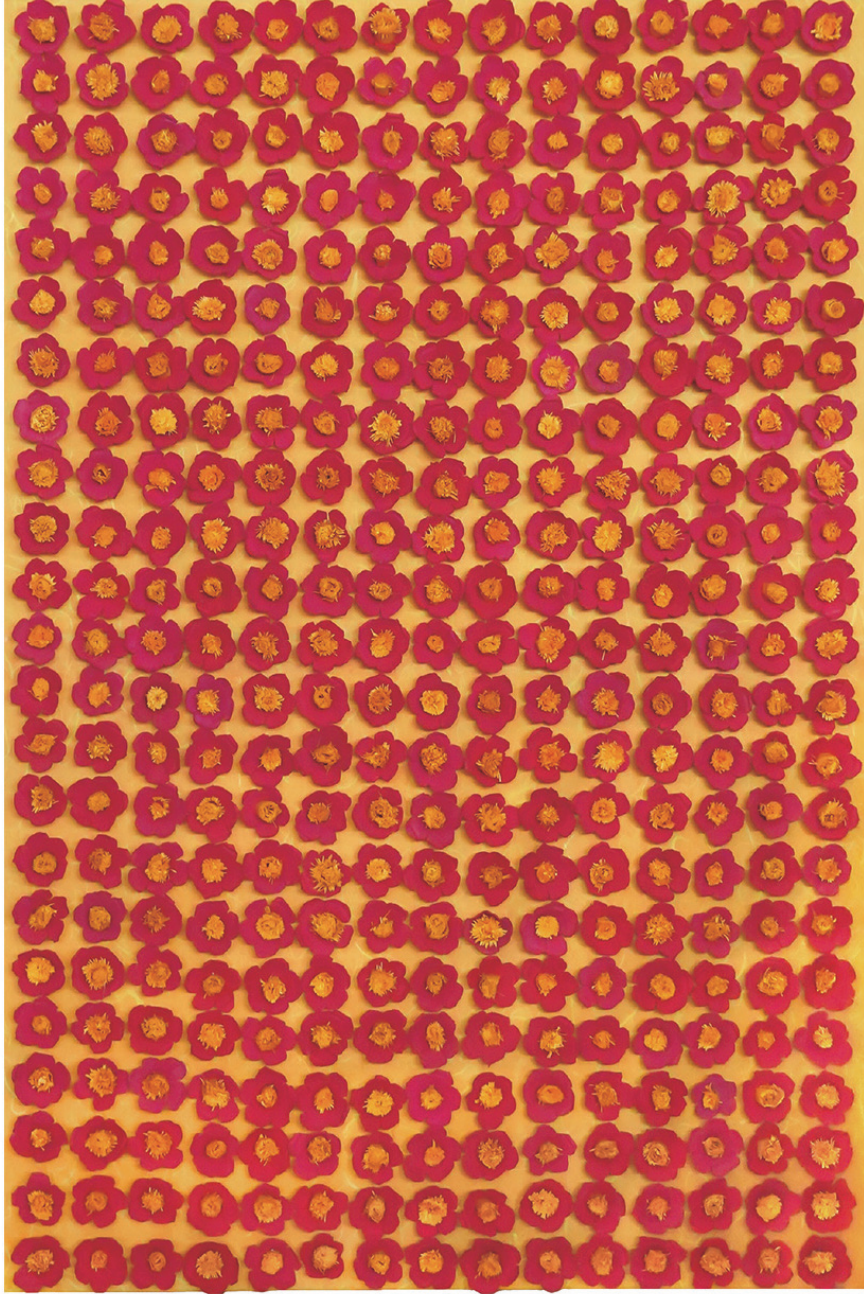
현재 어머니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엄마에게서 난다. 특히 인간에게는 세상으로 향하는 첫 관문은 어머니를 통한 문이고, 실질적인 세상인 사회로 나가는 첫 관문은 산부인과 문이다. 창은 연구자가 태어난 날 날씨가 맑았으므로 맑은 하늘로 채색하였고 연구자가 처음으로 뿌리를 느낀 존재인 동백을 창과 문 사이에 심었다. 창은 곧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문은 사회의 시작이므로, 둘 사이에 목적어 없는 노스텔지어의 대상인 동백꽃을 그렸다는 것은, 연구자는 교차문화 아이들로서 세상을 바라봄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붕은 유럽의 전형적인 지붕 재료인 청동을 표현하기 위해 에메랄드빛으로 칠했는데, 이는 연구자의 태몽과 관련되었다.

한때 한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어머니와 자식이 분리되어 타인으로 살아간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뱃속에 부모를 넣고 열 달 동안 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교차문화 아이들로서 겪은 혼란스러운 과거와 현재를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로 성장하여 다문화적 경험으로 습득된 다양한 언어와 넓은 이해의 폭으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리를 듣고 다양

78) 「LAROUSSE」 (프랑스어 사전)

79) metaphoriser 프랑스어 동사 (옛) 은유적인 형태로 표현하다. 1. 은유를 써서 표현하다. (『프랑스어 불한사전』, 『동아출판』)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채색되고 왜곡된 이 작품을 바라보며 잠시라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다시 합체되었다가 새로이 탄생하는 상상을 하길 바라며 이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10】 florissant



【작품10】 florissant (detail cut)

【작품10】 florissant<sup>80</sup>(피움)

제작연도 : 2023

작품크기 : 100×72.7×6.2cm

작품재료 : 캔버스, 한지, 달걀판, 수채화, 색지

### 제작방법

1. 캔버스에 풀을 먹인다.
2. 주황색 한지를 캔버스 위에 바르고, 한지 위에도 풀을 2회 바른 뒤 건조한다.
3. 2번 위에 노란색 한지를 한 번 더 바른다.
4. 달걀판 열두 판에 해당하는 345개의 오목한 부분을 잘라 꽃잎의 형태로 만든다.
5. 4번을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다.
6. A4용지 30여 장을 잘라서 접은 뒤 1mm 간격으로 잘라 345개의 술을 만든다.
7. 5번과 6번의 결과물을 접착해 동백 꽃송이를 만든다.
8. 한지를 발라둔 캔버스 위에 가로 15개 세로 23개로 오와 열을 맞춰 표시한 뒤 꽃송이를 붙인다.

---

80) '피움'의 프랑스어는 fleurissant다. 하지만 이 그림의 제목은 florissant로, '꽃피우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florir로부터 파생되었다. florir는 구어체로, 현대 프랑스에서는 fleurir 동사를 쓴다. 하지만 동명사 형태는 florissant과 fleurissant 둘 다 살아남아 아직도 쓰이고 있다. fleurissant은 꽃을 피운다는 의미의 동명사고, florissant은 번영과 건강을 의미하는 동명사다.

## 작품설명

이 작품은 한 인간으로서 건강과 번영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열정적인 작업과 번영을 기원하며 전시의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설정했다. 가톨릭의 목주나 불교의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거나 수행하는 것처럼,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담아 배지에 꽃을 붙였다. 반복되는 단순노동을 통해 목표에 대한 간절함과 순수함을 담고자 했다. 앞선 작품들에서 설명했듯 연구자는 주변 사람들의 온기를 받아 용기를 내는 미래를 그린다. 따라서 ‘플로리쌍(florissant)’과 ‘플리리쌍(fleurissant)’ 두 단어 사이의 고민이 길지 않았다. 국어의 ‘피다’라는 단어에는 ‘꽃이 피다’라는 일차원적 의미 외에도 희망이 피어나다/번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프랑스어는 둘을 분리해 썼으므로 연구자는 희망이 피어남과 번영을 뜻하는 플로리쌍(florissant)을 채택하였다.

작품의 배지는 【작품4】부터 쓰인 ‘빛’ 혹은 ‘온기’를 표현한 색상으로 맞췄다. 본 작품은 모든 작품의 목표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용기 즉, 온기로 이루어 나갈 작가 개인으로서의 목표와 작가로서의 목표를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에게 동백이란 곧 뿌리에 대한 첫 고민이므로 교차문화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동백 한 송이 한 송이는 교차문화 아이들로서 살아온 경험의 총합이며 과거의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작품에 대한 열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작가로서 받게 된 지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사랑이 온기라는 발에 고르게 심긴 것은 건강한 정신과 작가로서의 번영의 꽃씨이다.

### III. 결 론

이 연구는 연구자의 교차문화 정체성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연구로, 과거의 혼란과 현재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목표를 담았다.

연구자의 교차문화 정체성 형성 과정은 공감각·다(多)감각으로 표현된다. 기억은 후각과 시각 정보로 얽혀있으며 한 장면이 하나의 색채로 나타나기도 하며 고통은 신체화되고 그것은 음악으로, 음악은 장면으로 다시 표현된다. 작품에 활용된 지각은 시각, 후각, 청각, 촉각이며 이들은 단독으로 혹은 융합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회화가 미술사 속에서 입체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평면이 입체를, 시각 정보가 촉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회화가 동굴 벽의 요철에 회귀하는 노스텔지어이다. 이 상징을 담아내기 위하여 파피에 콜레, 콜라주, 종이죽 소조 기법을 사용하였고 재료로는 현대미술의 첫 오브제인 종이와 물질적 노마디즘을 대표하는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상징성을 부각하였다. 이처럼 교차문화 정체성인 노스텔지어, 융합, 주변성을 평면예술인 회화에 질감과 입체감을 재부여하는 작업을 통하여 표상하였다.

고통이 무게와 압력으로 표출된 기억을 시각예술인 애니메이션과 청각예술인 음악을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음악은 애니메이션과 함께 재생되며, 단편적인 사건인 이주(移住)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이 현재까지 지속됨을 상징한다. 루프 재생을 통해 시작과 끝이라는 단절이 아닌 영속성을 강조하였다. 음악은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이 차지하는 범위보다 큰 공간을 아우르면서 전시의 시간과 공간을 제안한다.

각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후각 정보로 기억하고 있던 연구자는, 기억과 후각

이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향을 재현하였다. 재생된 기억을 후각 자극 요소와 시각 자극 요소를 섞어서 표현하고 관람자에게 제공하였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한 조향 작품은 전체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장치가 된다.

애니메이션과 음악, 그리고 시각 작품을 위한 캐릭터나 아바타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주(移住)라는 사건을 통해 교차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성인이 되어서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기억의 지속을 통한 자의식, 즉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르그송의 유동적 자아는 교차문화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인 이주를 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찰자의 시선에서 분석되었던 피실험자로서의 교차문화 아이들의 기록을 넘어, 교차문화 아이들 출신인 연구자가 직접 교차문화 아이들로서 겪어 온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며 미래의 희망을 그려낸 직접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문자와 통계 수치로서 기록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시각예술 기록으로서 언어가 담지 못하는 교차문화 아이들의 감정이 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특별하다. 또, 국내에 몇 없는 교차문화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남김으로써 후배 교차문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전시가 끝난 뒤 작품들을 훑어보니, 여전히 시각적 요소가 두드러진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공감각적 표현에 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본인의 향후 과제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본인의 다학제적인 바탕을 적극 활용하여 음악, 회화, 조각, 향기와 기술을 결합한 공감각 인터랙티브 아트로써 교차문화 정체성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깨달았던 교차문화 정체성의 장점인 가교적 리더 역할을 부각하고 이것이 작품활동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등 본인의 교차문화적 감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련해야겠다. 더불어 ‘교차문화 아이들’이라는 과거지향적인 단어로 정체성을 가두기보다, ‘교차문화 향유자’와 같은 단어를 염두에 두며 이 정체성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데이비드 폴락, 루스 반 레켈 저, 박주영 역, 「제3문화 아이들 : TCK : 세계에서 성장하는 경험」, 『비즈니스』, 2008
- 릭 브누아 저, 민계숙 역, 「Que sais-je ? 회화의 역사」, 『탐구당』, 2004
- 베르그송 저,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05
- 월간미술 편집자,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97
- 진 벨빌라다 외 3인 저, 이수경 외 2인 역, 「제3문화 아이들, 교차문화 아이들 그리고 국제유목민」, 『한울』, 2022
- 전영백 저, 「발상의 전환」, 『열림원』, 2020
- 한상우 저, 「베르그송 읽기」, 『세창미대어』, 2015
- 황수영 저,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 Henri Bergson, 「Matiere et Memoire, Henri Bergson」, 『PhiloSophie』, 2018
- J. Peter Burkholder 외 2인, 「A history of Western Music」, 『Norton』, 2006

### 【학술논문】

- 이수경 외 2인, 「해외거주 한인 CCKs의 출국시기,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3권 2호, 2015
- 이수경 외 6인,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의 학업·사회적

- 적응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4-3호, 2018
- 이수경, 「제3문화 아이들’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모색 : ‘교차문화 아이들’ 용어 제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제2호, 2021

## 【학위논문】

- 김태연, 「디아스포라와 이성자의 미술세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6
  - 박세진, 「무후각증으로 유발된 기억 및 학습장애에 대한 ascorbic acid의 영향」,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7
  - 박효정, 「건축적 구조를 차용한 회화의 부조적 표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신재연, 「추상표현을 통한 부조회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5
  - 이상근, 「순수기억에 의한 미적진술 방법연구 -연구자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20
  - 이영미, 「후각자극이 실어증자의 단어 재현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1998
  - 이주이, 「경계의 모호성’과 ‘시선의 전복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20
- 이현경, 「베르그송 철학의 미학적 의의 -‘지속’과 ‘직관’ 개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3
- 정형근,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디아스포라 소설 활용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4
  - 황진현, 「시각예술기록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

## 【e-book 및 웹사이트】

- 리처드 사이토윅 저, 조은영 역, 「공감각」, 『김영사』 [e-book]
-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다 -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기록원》 (<http://archives.go.kr/theme/next/koreaOfRecord/globalTravel.do>) 4월24일 접속
- <South Korea', Migration Policy Institute>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2017>) 4월 24일 접속
- <TCK Cultural Identity Discovered Through Art>, 《The Global /tckcultural-identity-discovered-throughart/》 5월5일 접속
- <Cross Cultural Kids By Ruth Van Reken> (<https://www.crossculturalkid.org>) 4월 24일 접속
- 안옥희, <향기 마케팅의 세계... 향기에 취해 지갑 여는 소비자들>, 《한경 BUSINESS》, 7.21.2020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07210530b>) 5월 3일 접속
- <The Evolution of Preparation for Painting on Canvas in Sixteenth Century Spain>, 《Museo Nacional del Prado》, (<https://www.museodelprado.es/en/learn/research/studies-and-restorations/resource/the-evolution-of-preparations-for-painting-on/39cd7ac1-b445-49da-9362-61dbc19c5ed8>) 4월29일 접속
- <Shin Sung Hy, Palazzo Caboto in Venice> 《갤러리현대》 (<http://galleryhyundai.com/exhibition/view/20000000049>) 4월 29일 접속

# ABSTRACT

## A Study on the Synesthetic Expression of Cross-Cultural Identity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LEE, Seoyul  
Public Art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This study analyzes artistic works that express the experiences of the researcher raised in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feelings while overcoming acculturation stress in a multisensory and synesthetic manner.

These individuals, known as "*Cross-Cultural Kids*," experience confusion and anxiety between two or more cultures for the following reasons: an indelible sense of loss, known as nostalgia, and diasporic nomadism, where it is challenging to define an emotional home.

To explain how the fragmented past event of migration impacts the researcher's overall life, the concept of duration by Henri L. Bergson is considered. The continuity of past memories allows us to maintain a consistent self, meaning that the experiences from childhood

migration continue to influence the researcher's identity and values into adulthood.

Synesthesia is suitable for explaining the unique identity and values formed by Cross-Cultural Kids through cultural hybridity. Additionally, this multisensory approach offers viewers an easier understanding and immersive experience. The researcher created a fragrance piece utilizing the connection between olfactory stimuli and memories. Through this installation, the researcher aims to reproduce past memories triggered by olfactory stimuli, hoping that viewers, influenced by the nostalgic emotions released through scent molecules before visually appreciating the artwork, would have an enhanced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work.

Using Bergson's concept of "*duration*", this study expresses the impact of past memories on the present through animated and musical works. By playing this work in a loop, the beginning and end become ambiguous, emphasizing continuity.

The experiences of Cross-Cultural Kids, who grow up adapting to multiple cultures, can be projected through the evolution of painting in art history as i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the wall. The relief-like nature of painting symbolizes the cultural marginality of Cross-Cultural identity, who feel comfortable within ambiguous boundaries. It also suggests their unique way of integrating various cultures, highlighting their future role as cultural bridges.

This study is centered around the works submitted for the 2024 Master's Thesis Exhibition and is composed as follows: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as well as its necessity.

The main body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works, the methods used to express them, details the creation process of each piece, and provides explanations of the works.

The conclusion presents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discusses its limitation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